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명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행동 및 화장동기의  
관계 연구

- 20, 30,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노 선 옥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행동 및 화장동기의  
관계 연구

- 20, 30,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

이 명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노 선 옥

# 인 준 서

노선옥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20-40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와 미용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미용행동의 차이를 조사하며, 인구통계적 변인,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가 헤어스타일 행동과 화장동기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미용행동은 헤어스타일 행동, 화장동기, 헤어스타일 및 화장 이미지 선호, 헤어스타일 선호, 화장수준을 포함하였다. 대인관계성향은 지배우월, 동정수용, 사교우호, 과시도취의 4개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생활만족도는 경제·사회적 만족, 행복감, 신체적 만족의 3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피험자의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소득, 사회계층, 거주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674명으로 서울의 수도권 지역이 309명, 강원도 지역이 365명이었다. 자료분석은 요인분석, Cronbach의  $\alpha$  신뢰도계수 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t$ -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chi^2$ -tes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1. 대인관계성향과 미용행동의 관계

첫째, 대인관계에서 지배우월, 동정수용, 사교우호, 과시도취 성향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행동의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을 모두 중요시하였고, 화장동기에 있어서도 자신감증대, 예의성, 변화의 즐거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색조화장을 더 많이 하였다.

둘째, 지배우월과 과시도취 성향이 높을수록 화려하며 독특한 헤어스타일 및 화장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사교우호 성향이 높을수록 여성적인 헤어스타일 및 화장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셋째, 지배우월과 과시도취 성향이 높을수록 짧은 컷 스트레이트를 선호하였고, 동정수용과 사교우호 성향이 높을수록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를 선호하였다.

## 2. 생활만족도와 미용행동의 관계

첫째, 경제·사회적 만족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행동에서 동조성과 개성을 중요시하였고, 화장을 할 때 자신감증대, 예의성, 변화의 즐거움에 대한 동기가 높았으며, 품위 있고 전문직처럼 보이는 헤어스타일 이미지와 화장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둘째, 행복감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의 대인지향과 개성을 중요시 하였고, 여성적이며, 세련된 헤어스타일 이미지와 화장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셋째, 신체적 만족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의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을 모두 중요시 하였으며, 화려하며 독특한 헤어스타일 이미지와 화장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넷째, 경제·사회적 만족과 행복감이 높은 여성은 화장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미용행동의 차이

첫째, 헤어스타일행동 중 대인지향은 40대 후반 여성이 20, 30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강원도 지역 여성은 서울 지역 여성보다 헤어스타일의 동조성과 유행을 더 중요시 하였다.

둘째, 화장동기 중 예의성은 40대가 가장 높았고 20대 전반이 가장 낮았다. 고졸 이하는 예의성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생은 예의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기혼여성은 미혼여성보다 예의성을 중요시하였고, 강원도 지역 여성이 서울 여성보다 더 예의성을 중요시하였다.

셋째,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 중 단정한 이미지와 품위 있는 이미지는

30, 40대가 20대보다 더 선호하였다. 독특한 이미지는 20대 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으며, 전문직 같은 이미지는 30대 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다. 상류와 중류층은 하류층보다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았다.

넷째, 화장 이미지 선호 중 화려한 이미지는 20대 및 30대 전반이 30대 후반 및 40대 연령층보다 더 선호하였다. 품위 있는 이미지는 30, 40대 여성이 20대보다 더 선호하였다. 품위 있는 이미지, 전문직 같은 이미지, 세련된 화장 이미지는 대학원졸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다. 또 품위 있는 화장 이미지는 상류층이 가장 선호하였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는 상류와 중류층이 하류층보다 더 선호하였다. 미혼 여성은 기혼 여성보다 화려한, 독특한, 귀여운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다.

전체적으로 화장 이미지 선호와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평균을 비교하면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고, 독특한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다섯째,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 순서로는 20대 후반 및 30대 전반 여성은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스타일을 선호하였고, 30대 후반 및 40대는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를 선호하였다. 짧은 컷 스트레이트는 가장 선호되지 않았다.

여섯째,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색조화장을 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중류층은 색조화장을 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고, 상류층은 색조화장을 하는 정도가 높았다.

#### 4. 헤어스타일 행동과 화장동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첫째, 헤어스타일의 동조성을 추구 행동에는 지배우월, 경제·사회적 만족, 행복감(-), 사회계층(-), 거주지가 동시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대인

지향 행동에는 사교우호, 과시도취,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헤어스타일의 유행 추구행동에는 사교우호, 과시도취, 지배우월, 거주지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개성 추구행동에는 과시도취, 신체적 만족,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화장동기 중 자신감증대에는 과시도취, 사교우호, 지배우월 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예의성의 화장동기에는 연령, 과시도취, 사교우호, 거주지가 영향을 주었으며, 변화의 즐거움을 위한 화장동기에는 사교우호, 과시도취 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배우월, 과시도취, 사교우호 등의 대인관계성향은 헤어스타일행동 및 화장동기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지배우월의 성향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행동의 동조성과 유행을 동시에 중요시하면서 다양한 화장동기가 높았다. 또한 경제·사회적 만족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의 동조성을 추구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행복감이 높은 여성은 여성적인 미용이미지를 선호하였고, 신체적 만족이 높은 여성은 화려한 미용이미지를 선호하였다.

# 목 차

논문개요 .....	i
<b>I. 서론 .....</b>	<b>1</b>
1. 연구의 의의 .....	1
2. 연구의 목적 .....	4
<b>II. 이론적 배경 .....</b>	<b>5</b>
1. 여성의 미용행동 .....	5
2. 대인관계성향과 외모관련행동 .....	18
3. 생활만족도와 외모관련행동 .....	28
<b>III. 연구방법 .....</b>	<b>38</b>
1. 연구문제 .....	38
2. 용어정의 .....	39
3. 측정도구 .....	42
4.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	49
5. 자료분석 .....	51
<b>IV. 연구결과 및 논의 .....</b>	<b>53</b>
1. 헤어스타일행동, 화장동기, 생활만족도의 요인분석 .....	53
2. 대인관계성향과 미용행동의 관계 .....	57
3. 생활만족도와 미용행동의 관계 .....	67

4.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미용행동의 차이 .....	73
5. 헤어스타일행동과 화장동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	89
<b>V. 결론 .....</b>	<b>97</b>
1. 요약 및 결론 .....	97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	104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헤어스타일행동의 문항 .....	43
<표 2> 헤어스타일 이미지, 화장 이미지 선호와 헤어스타일 선호의 문항 .....	44
<표 3> 화장동기의 문항 .....	45
<표 4> 대인관계성향의 문항 .....	46
<표 5> 생활만족도의 문항 .....	48
<표 6>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분포 .....	50
<표 7> 자료분석 내용 및 측정방법 .....	52
<표 8> 헤어스타일행동의 요인분석 .....	54
<표 9> 화장동기의 요인분석 .....	55
<표 10> 생활만족도의 요인분석 .....	56
<표 11>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행동, 화장동기의 상관관계 .....	57
<표 12>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	60
<표 13> 대인관계성향과 화장 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	62
<표 14>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 선호의 상관관계 .....	64
<표 15> 대인관계성향과 색조화장수준, 화장시간의 상관관계 .....	66
<표 16>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 화장동기의 상관관계 .....	67
<표 17>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	69
<표 18> 생활만족도와 화장 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	70
<표 19>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선호의 상관관계 .....	71
<표 20> 생활만족도와 색조화장수준, 화장시간의 상관관계 .....	72
<표 2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행동의 차이 .....	73
<표 2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동기의 차이 .....	75
<표 2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차이 .....	77

<표 24>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 이미지 선호의 차이 .....	80
<표 25>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의 차이 .....	83
<표 26> 인구통계적 변인과 색조화장수준의 관계 .....	87
<표 27> 인구통계적 변인과 화장시간의 관계 .....	88
<표 28> 헤어스타일 행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90
<표 29>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91
<표 30> 생활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91
<표 31> 화장동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94

## 그림 목 차

<그림 1> 동조성 추구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	92
<그림 2> 유행 추구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	93
<그림 3> 개성 추구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	94
<그림 4> 자신감증대의 화장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	95
<그림 5> 변화의 즐거움의 화장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	96

# I. 서론

## 1. 연구의 의의

현대사회에서는 생활수준의 향상, 대중매체의 발달 등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에 와서 개인의 외모매력성은 성공을 위한 포인트로 작용할 만큼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는 외모매력성을 높임으로써 자신을 상대방에게 보다 능력 있게 보일 수 있고 나아가 인간관계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외모매력성을 성공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이명희, 이미연, 2004).

외모가 갖는 시각적 효과는 자기 자신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외모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적극적인 사회적 성취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생활에서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나은 외모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오늘날 외모지상주의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외모중시 현상은 여성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개성표현과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며 소극적 또는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외모관리행동은 타고난 외모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자신의 외모를 더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김선희, 2003).

외모관리행동 중 하나인 미용행동, 즉 헤어스타일과 화장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헤어스타일과 화장은 인간의 신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의복, 액세서리 등과 함께 토털 패션의 한 분야로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윤소영, 2001).

외모를 통해 자아이미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화장은 여성들이 자기에 관한 생각과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행동지표(박은아, 2003)이며 헤어스타일은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외모변인 중 하나(Cash, 1985)이다. 또한, 헤어스타일과 화장은 신체를 장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얼굴형이나 피부색 또는 체형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의복과 더불어 인상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헤어스타일과 화장이 가져오는 무엇보다 확실한 심리적 효과는 당사자 자신의 자신감과 만족도의 상승이고 이것은 일종의 정화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대인적인 행동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余語莫夫,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용행동에 헤어스타일과 화장을 포함하고자 한다.

인간의 삶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의한 관계의 연속이며 여러 가지 형태의 끊임없는 대인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잘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며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인들과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인간관계의 정립을 통하여 보다 풍부하고 완성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김현경, 1985).

직장인의 외모와 대인관계를 연구한 임창희(2007)는 신체적 매력이 우월한 여성이 직장에서의 성공과 관련이 있다면 단지 여성이 갖고 있는 외모매력성 때문만이 아니라 외모가 자아존중감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조은(2003)은 여성의 화장행동은 심리적 안정감이나 대인관계, 업무자신감 등과 관련이 있으며 화장이 만족스러울수록 대인관계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또 노인여성이 화장을 하면 기분이 전환되고 누가 길을 물어 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해 남의 눈을 피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이원진, 2003).

한편 생활만족도란 각 개인이 신체, 정신,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서 느끼

는 주관적인 안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개인의 삶 전반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의 감정 상태이다(최현, 1997). 선행연구(Ash, 2003)에서 여성의 외모 가꾸기가 마음가짐까지 향상 시킬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결과, 여성은 더 아름다워 보이고 자신이 또 그렇게 느끼게 될 때 기분도 상승되고 삶에 변화를 일으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전효정(2005)은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전현진, 정명선(2008)의 연구에서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중년여성들도 젊은 여성 못지않게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다양한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의 신체관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연령층의 적절한 외모관리행동은 이상적인 외모에 근접하여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외모관리의 하나인 미용행동은 대인관계 및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미용행동의 심리적 특성연구는 선행연구들에 의해서 각각 의미 있는 변인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미용행동에 대인관계 및 생활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미용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행동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대인관계 및 개인의 생활만족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미용학의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미용행동이 개인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전반에 있어서 미용행위의 효용성을 밝히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40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와 미용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미용행동의 실태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용행동은 헤어스타일행동, 화장동기, 헤어스타일 이미지와 화장 이미지 선호, 헤어스타일 선호, 화장수준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 화장동기,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 화장 이미지 선호, 헤어스타일 선호, 화장수준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행동, 화장동기,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 화장 이미지 선호, 헤어스타일 선호, 화장수준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인구통계적인 변인,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가 미용행동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성의 미용행동

#### 1) 헤어스타일 행동

외모는 타인에 대해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정보로 성별, 나이, 성격,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판단하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 대중매체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유행변화와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인해 사람들은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은 외모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외모행동 중 하나인 헤어스타일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해주는 영향력 있는 신체적 외모변인으로 패션이나 화장, 액세서리 등과 함께 개인의 이미지연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헤어디자인 요소들의 시각적 특징이 조합되어 형성되는 것으로(이효숙, 2008) 머리형태, 머리길이, 색상, 질감으로 구성되고 헤어스타일행동은 헤어스타일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습관, 선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 선택, 태도, 신분 등을 반영한다(박숙현 외 2006).

여대생의 신체와 헤어스타일 행동에 대해 연구한 박주비(2004)는 헤어스타일행동을 헤어 동조성, 헤어 개성성, 헤어 심미성, 헤어 의존성의 4개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키가 크고 달걀형이며 두상이 볼륨이 있는 여대생일수록 헤어 심미성이 높게 나타나 신체에 만족할수록 심미성을 추구하며 불만족할수록 헤어스타일 변화나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여대생의 신체적 특성과 만족도에 따른 헤어스타일행동을 연구한 김진아(2011)의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 측정 항목을 주관적, 상대적, 실제적 3요인으로 분류하였고 헤어스타일 태도 측정 항목은 모방형, 관심

형, 신중형, 소심형, 비관형 5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체형과 헤어관리 상관관계에 유의성이 나타나 체형이 비만일수록 원하는 스타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부분적 신체보다는 전체적 체형을 더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하주연 외(2005)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에 따른 헤어스타일 태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헤어스타일 태도를 헤어스타일 흥미도, 헤어스타일 개성추구, 헤어디자이너 의존성의 3개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헤어스타일 흥미도가 높게 나타났고,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헤어스타일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주비(2004)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혜원(2006)은 의복관여와 헤어태도 및 헤어관여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연령집단에 따른 헤어태도와 헤어관여 차이에서 젊은 여성들은 유행에 민감하면서 헤어 연출성이 높게 나타났고 중년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체면을 중요시 하며 나이든 세대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중년층의 헤어행동을 연구한 홍성임(2007)은 대부분 한 달에 한번은 이, 미용실에 가고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1만원~5만원의 헤어비용이 들었다. 40대 후반은 스타일연출에 관심이 많으며 50대 이후부터는 흰머리 커버에 신경을 쓰고 월 소득이 높을수록 헤어관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숙희(2002)는 15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헤어스타일에 대한 의식 행태를 연구한 결과, 헤어스타일의 만족 수준은 경제 상태와 학력이 낮을수록 낮고, 패션스타일에 따라 헤어스타일에도 변화를 주며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이유는 기분전환하고 싶을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정진태와 김칠순(2009)의 헤어행동연구에서는 여성의 현재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은 직업과 관련이 있는데 직장여성은 롤스트레이트, 학생은 매직

핍, 주부는 일반 웨이브 핍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었다. 헤어스타일링 시 고려하는 기준을 보면 학생의 경우 자신만의 개성연출을 중요시 하였으며 헤어스타일 변화 시 남자친구의 의견을 수용해 스타일링 하였다. 반면 직장여성과 주부의 경우는 전문가의 의견을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더 많이 반영하였다.

김인선(2006)은 개인의 성격유형과 감각추구 성향 그리고 헤어스타일 행동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헤어스타일 행동과 감각추구 성향간의 관계에서 외향성, 직관형이 감각추구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헤어스타일 행동 중 판단형은 정숙형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연구한 김양휴(1996)의 패션 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에서 헤어스타일과 성격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주장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박숙현 외(2006)는 한국과 호주여성의 헤어스타일 행동을 개성추구, 동조성, 심미성, 유행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령별로 헤어스타일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는 한국은 헤어디자인, 의복과의 적합성, 사회적 신분에서, 호주는 관리의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스타일 행동에 있어서는 유행성과 개성추구는 연령별에서, 동조성추구는 국가 간에 차이를 보였으나 심미성추구는 연령과 국가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볼 때 헤어스타일 행동은 성격, 신체만족, 대인관계, 기분전환 등의 심리적 요인, 연령, 직업, 지역 등의 인구통계적 변인과의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헤어스타일 행동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자기 가치 표현으로서의 특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화장동기

인간의 화장동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는데, 고대로부터 시작하여 미적본능의 장식적 수단으로 시작되었다는 장식설,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이성 유인설, 피부의 보호나 건강을 위해 행해졌다는 보호설, 그리고 주술적인 행위로 행해졌다는 종교설, 그리고 결혼유무라던가 신분, 계급 등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설 등으로 설명되기도 하나, 이중 그 어느 한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회가 지배하던 문화적 개념에 따라서 그 동기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조은, 2003).

요즘 현대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매일 혹은 필요에 따라 화장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관리나 제시 및 인상관리 차원에서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욕구 및 동기로 인해 화장을 하게 하는 주요한 동인이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규정된 혹은 공유된 미의 기준과 여성에 대한 기대에 따라 여성들은 화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화장행동은 다시 여성의 성 정체감과 자기 개념의 구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기범, 차영란, 2006). 화장을 하는 여성은 맨 얼굴의 자신과는 다른 자기를 표현함으로써 자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다 활발한 대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활발한 대인 행동은 그 여성에게 자신감이나 자기 충족감을 부여하는 파급적 효과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余語, 1995).

또한 화장품 사용의 심미적 요인은 근본적으로 미의 추구에 있으나 이는 단순히 미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그 자체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며,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만족감의 추구, 자기 개선의 실현 및 자신의 자아 감각을 높이는 이상적인 이미지 추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화장품 신문사, 1998).

Cash 외(1989)는 화장을 한 여성은 화장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타인에게 호의적으로 평가된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장을 하는 것

은 사회적으로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이 되며 자기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외모관리의 주요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Bloch & Richins(1992)는 여성들이 화장을 하게 되는 이유나 의미는 미적관심 때문이며 건강뿐만 아니라 화장을 통해 본인의 결점을 보완하거나 감출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거나 아름답게 보일수있다고 하였다.

Rudd(1997)는 일상적이고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화장동기는 사회비교 과정에서 출발하는데, 여성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주변인이나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자신의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자신의 모습을 이들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자신의 외모 개선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성이 개인적으로 행하는 화장이 실제적으로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행위가 된다고 하였다.

이화순(2002)은 화장은 에티켓이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동기로서 사회적 자아개념이 형성되면서 이상적 자아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박은아(2003)는 ‘화장동기’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성의 욕구실현을 위한 개인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으로써 여성이 지켜야 할 역할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사회적 행동이다. 여성들의 화장에는 소극적으로는 여자로서의 ‘예의’를 갖추었음을 보이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의미 있는 타인을 향해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위한 행동이라고 하였다.

김기범과 차영란(2006)은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화장이유를 알아본 결과 여성으로서 필연적인 삶의 과정, 즉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고 동조현상도 보였으며 ‘예뻐보일려고’ 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화장의 구성적 차원이자 기능인 사회적 인정이나 대인관계 상호작용의 특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울증이나 신경성 스트레스를 지닌 사람들에게 색조화장 등의 화장요법을 실시한 결과, 자신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변화된 모

습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Graham & Jouhar, 1983).

한편 여성들의 화장은 자의적인 표현이며 또한 화장이 아름다움을 재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도구이며 또한 화장을 하는 것은 일종의 생활에 있어서 예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이승신, 김시월, 1996).

강경화(2000)의 연구에서는 화장은 무언의 의사전달 역할을 하여 사회적 관습이나 예의의 표현이고 신분이나 직업의 표시를 나타내는 기능도 한다고 하였다.

Dellingger와 Williams(1997)의 연구에서는 직장여성들이 직장에서의 유능함이나 전문적인 이미지를 향상 시키는 데에도 화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화장동기는 단순히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을 충족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상호작용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헤어스타일 이미지와 화장 이미지 선호

헤어스타일 이미지는 모발에 각각의 디자인 과정을 적용시켰을 때 나타나는 전체적 이미지로 헤어길이, 컬러, 웨이브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이 요소들의 특징들이 독립적 혹은 서로 결합하여 전달됨으로써 구현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이효숙, 2008). 또 개인의 얼굴과 두상조건, 성별, 연령 그리고 계절 등을 고려한 적절한 조화로 완성(하경연, 이명희, 2008)하게 된다. 또한 개인이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표현할 이미지를 결정하고 나면, 그 상황에 적합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때 헤어스

타일은 상황적 자기 이미지의 훌륭한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이호숙, 박숙현, 2007). 이는 헤어스타일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기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상징의 역할을 하며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김미정, 박숙현, 2009).

Terry 와 Davis(1976)에 의하면 얼굴 매력은 입, 눈, 얼굴 구조, 머리카락, 코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헤어스타일도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나광주(1989)의 연구에서는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의복이 53.33%, 헤어스타일이 46.67%로 의복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체의 전체크기로 볼 때 헤어스타일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보고하였다.

네크라인과 헤어스타일이 얼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영미와 서미아(1998)는 전체적으로 긴 웨이브와 단발 웨이브 스타일은 개성적이며, 여성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고 긴 직모나 단발 직모에서는 단정한 이미지와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가 네크라인에 상관없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커트머리는 지적인 이미지와 개성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다른 헤어스타일에 비해 앞머리를 내린 단발 직모가 이미지 지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명희(2004)의 연구에서는 헤어스타일 및 헤어컬러가 이미지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짧은 생머리는 품위가 높게 지각되었으며, 긴 생머리는 여성적으로 보이나 활동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짧은 파마는 활동성과 귀엽성이 높았고, 긴 파마는 품위가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밝은 갈색 생머리는 개성이 높게, 짧고 검정색인 경우에는 품위가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전통주의 가치가 높은 사람은 여성적인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신호정(2002)은 20대 여대생과 40대 이후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20대는 얼굴이나 얼굴형에 따라 헤어스타일을 바꾸며 헤어스타일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헤어스타일의 변화로 기분전환을 시도하였다. 또한 유행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중요시 하였고, 헤어스타일과 의복의 상호 조화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후는 전반적으로 짧은 헤어스타일을 선호하였으며 헤어스타일을 가꾸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였다.

서윤경(2003)은 여대생의 성격유형과 헤어스타일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강인성이 높은 집단이 세련된 스타일, 신뢰적인 스타일 그리고 인상이 좋아 보이는 스타일에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허위성이 높은 집단은 섹시한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며 외·내향성이 높은 집단은 로맨틱한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엘레강스 스타일은 외·내향성, 정서성, 허위성 집단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영과 김영철(2006)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으로 분류한 성격차원과 머리길이, 웨이브, 컬러링의 헤어스타일은 거의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웨이브 유·무에서만 감각형이 직관형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 중에서 성격과 헤어스타일 간에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김양휴(1996), 서윤경(2003)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박미애(2009)의 연구에서는 연예인의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모던, 로맨틱, 매니쉬, 내추럴, 에스닉, 클래식, 섹시, 엘레강스 중 모던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일반인들이 헤어스타일 결정시 연예인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대해 내적/외적 이미지 집단별로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화장 이미지란 여러 가지 화장품과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이 화장

을 하였을 때 느끼는 화장으로 인해 변화된 이미지를 말한다(이화순, 2002).

여성들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미지로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화장으로 이미지를 구성하고 젊은 여성들은 성숙한 모습의 이미지로 평가받기 위해 화장으로 재구성하며 나이든 여성들은 생기 있고 젊어 보이기 위해 화장으로 자기모습을 재구성하게 된다(김기범, 차영란, 2006).

이연희와 양취경(2002)은 20~50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색채화장의 이미지 지각의 차이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험 연구하였다. 20대 모델에게 내추럴, 로맨틱, 고저스, 업 투 데이트, 클래식, 베이직의 6개 이미지를 적용시킨 결과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베이직 화장을 가장 선호한 반면 로맨틱과 고저스 화장은 선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남녀는 색의 느낌이 두드러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얼굴을 더 선호하였다고 하였다.

이연희(2005)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피부 톤에 따른 화장색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화장색 이미지 지각에서 친숙성, 지성, 건강, 매력성, 진통성, 젊음의 6개 요인을 도출하였고 피부 톤은 입술색과 이미지 화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지각자들은 화장을 하지 않은 본 얼굴과 밝은 피부 톤에 연한 입술화장이나 부드러운 톤의 이미지 화장을 더 좋아한다고 하였다.

직장 여성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화장을 연구한 송은영(2005)은 직장여성들은 사회생활에서 얼굴이미지가 미치는 영향이 크며 화장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갖게 되어 대인관계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화장의 목적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직업별 이미지 유형 선호에서는 공무원, 의료기관, 서비스직과 기타 직장 여성은 내추럴한 이미지를, 금융업과 교육기관은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영업직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선호하였다고 하였다.

이현정과 김미영(2006)은 20세에서 45세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복추구 이미지와 화장추구 이미지 선호도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여성들은 화장과 의복의 이미지를 통일시켜 연출을 하고 있었으며 화장추구 이미지 선호도에서는 자연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젊은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낭만적인 이미지는 가장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정향옥(2009)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화장 이미지와 화장법을 내추럴, 투명, 은은한, 누드, 조화로운, 펄이나 반짝이를 사용한 것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적으로는 내추럴 화장을 선호하였고, 네일아트 전공의 경우에는 투명 화장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와 같이 헤어스타일과 화장 이미지 선호는 심리적 특성 및 인구통계적 변인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고 성인여성들은 의복과 함께 헤어스타일 및 화장 이미지를 연출할 때 유행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사회적 역할에 적합한 헤어스타일 및 화장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헤어스타일 선호

헤어스타일은 얼굴형과 이목구비의 조화에 따라 얼굴이 돋보일 수 있도록 변화를 줄 수 있는 신체적 외모 변인 중의 하나로 토털코디네이션 연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장규순, 2008). 따라서 어떠한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결점을 보완하고 개성 있는(김혜란, 2007)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헤어스타일 선호도와 자기효능감에 대해 연구한 정숙희와 심선녀(2001)는 여대생들은 컬러링 직모와 웨이브 모두 미디움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컬러링 직모의 경우 미디움 스타일을 선호하는 여대생들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란과 임은진(2007)은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이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헤어스타일 만족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헤어스타일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강동훈과 오세이(2009)는 헤어스타일이 여성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헤어스타일 선호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20대는 웨이브머리, 긴층머리, 단발을 주로 선호하였고 30대의 경우에는 드라이시술을 많이 하였으며 40대와 50대에는 웨이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에서 학생은 곱은 웨이브의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고전형과 자연형을 선호하였고, 낭만형은 30대 집단이, 대담형은 20대 집단에서 가장 선호하였다고 하였다(김복숙, 1999).

이호숙(2008)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20대는 레이어드 미디엄펌, 다크브라운, 와이드 웨이브를 선호하였으며 30대는 레이어드 미디엄펌, 다크브라운, 와이드 웨이브를 선호하였다. 40대 이상에서는 쇼트컷 펌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성별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에서는 남녀 모두 블랙 롱 스트레이트를 선호하였으며, 길이 선호도에서는 웨이브나 스트레이트스타일 모두 롱 헤어를 선호하였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에 대해 연구한 김양휴(1996)는 가장 마음에 들거나 따라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은 긴 직모에 부분 염색한 스타일이며 가장 싫어하는 헤어스타일은 커트 직모로 전체 염색한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분 좋고 특별한 날에는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컬이 있는 헤어스타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고성현(2006)은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별 헤어스타일 선호도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짧은 생머리스타일 경우 선호도가 낮은 반면 긴 길이의 웨이브스타일의 경우는 긴 길이의 생머리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한편 직장여성의 헤어스타일 선호도와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박선민(2007)은 연구결과,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미혼은 생머리를, 기혼은 c자형 셋팅을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은 생머리를 선호하고 공무원과 단순노무직은 c자형 셋팅을 선호하였다. 성격유형 별로는 ENFJ형은 우아한 스타일을, INTP형은 모던한 스타일과 낭만적 스타일이 선호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박진숙(2004)은 헤어스타일을 이마의 구성시스템에 따라 4가지 스타일로 분류한 뒤 가발을 제작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행지향, 개방적, 실속지향, 사교지향으로 분류한 후 선호도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유행지향 라이프스타일은 그레쥬에이션/I형과 인크리징레이어/C형을, 개방적인 라이프스타일은 그레쥬에이션/I형을 선호하였다. 실속지향 라이프스타일은 인크리징레이어/C형과 그레쥬에이션/S형을 선호하였고, 사교지향 라이프스타일에서는 베이직레이어/I형 헤어스타일을 선호하였다. 또한 연령과 결혼여부, 최종학력, 직업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김호정과 임은진(2009)은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패션지향형이 상대적으로 긴 머리와 웨이브가 있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장일(2005)은 의상이미지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연구하였는데, 모던한 서양정장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은 검정색의 미디엄 스트레이트로 나타났으며 캐주얼한 자유복장 중 흰색은 색상에 상관없이 미디엄 스트레이트가, 빨간색에서는 웨이브헤어스타일이 선호되었고 우아하고 고전적인 한복은 색상에 관계없이 업스타일이 선호되었다.

중년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연구한 김혜란(2007)은 현재 과체중일수록 짧은 커트머리를 많이 하고 마른편일수록 단발머리, 층이 없는 긴 머리를, 보통체형에서는 층이 있는 긴 머리를 많이 하고 있었다. 현재 헤어스타일과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스타일과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이 동일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남성지각자의 연령에 따라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의 선호도를 연구한 이명희(2007)는 자극물에 따른 선호도 평가에서 긴 머리, 직모, 갈색과 검정색이 가장 높게 선호되었고 중간 길이의 밝은 갈색 파마는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각자의 연령에서 볼 때 18~19세 남성들은 짧은 직모, 검정색 머리, 밝은 갈색 머리를 선호하는 편이었고 연령이 높은 남성들은 밝은 갈색머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남성 얼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조사한 배행숙(2007)은 연구 결과, 둥근형과 사각형 얼굴에는 상고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원형과 역삼각형 얼굴에는 짧은 레이어스타일을, 삼각형 얼굴에는 장발스타일을, 마름모 얼굴에는 장발웨이브가 장방형 얼굴에는 상고웨이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20대는 대부분 짧은 스타일을 선호하고 30-40대는 유행에 따라 웨이브나 긴 머리를 선호하였다.

한국과 호주여성의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연구한 박숙현 외(2006)는 선호하는 모발형은 한국과 호주 모두 직모를 선호하고 머리길이에서는 한국과 호주 간의 차이가 없었다. 펴의 종류에는 한국은 굵고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호주는 대체적으로 펴를 선호하지 않았으며 염색모의 색상은 한국은 갈색을 호주는 밝은 갈색을 선호하였다.

이와 같이 헤어스타일 선호는 의복, 화장과 함께 개인의 이미지 연출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헤어스타일 선호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2. 대인관계성향과 외모관련행동

### 1) 대인관계성향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human relation)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과 혼용되고 있다. 사회적 역할 관계를 의미하거나, 심리학적 개념상에 따라 의미하기도 하고, 일차원적인 카테고리에 따라 1차적-2차적 관계, 자발적-비자발적 관계를 지칭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한 개인의 사회적 역량과 품성을 평가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다”, “그는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라고 말할 때에도 사용된다(김문수, 2004).

인간관계는 조직 및 집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학적인 성향 특히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의 성향이 강한 것임에 비해 대인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리학, 사회학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김현경, 1985).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다양한 상황이나 과제에서 상호의존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형성되어지는 정서적 결속이나 연계를 의미하는 바, 그 친밀도에 따라서 친밀한 대인관계와 일상적인 대인관계로 분류될 수 있다. 친밀한 대인관계는 특히 개인의 발달상의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으로 개인의 발달과 안정에 영향을 주는 바, 부모-자녀관계, 애정관계, 친구관계로 분류 될 수 있다(박은미, 1999).

한 개인에게 있어서 대인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이자 측면인데, 특히 친밀한 대인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지지는 다양한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데 기여함으로써(Rook, 1984) 사회적 기능과 정신적, 심리적 안녕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갈등 역시 모든 대인관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특성으로써 관계의 질과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된다(박은미, 1999). 이렇듯 정서표현에 대해 갈등을 가지

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고, 대인관계에 꼭 필요한 상호작용을 원만히 하지 못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왜곡된 지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Emmons & Colby, 1995).

대인관계 형성과정은 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관계이다.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는 언어적 요소(자기개방,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요소(표정, 몸짓, 웃음, 시선 교환), 환경 지향적 행동(사적공간과 물건의 사용, 대인적 거리)등이 교환된다. 그리고 이런 교환이 피상적 수준에서 더욱 친밀한 수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인관계가 발전하게 된다(김문수, 2004).

대인관계의 목적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안정과 안전을 도모하고 협동, 상호이해 및 통제, 조화, 의미의 추구를 통해 형평 내지는 적응, 만족스러움 또는 어떤 목적의 달성이나 이득을 추구하여 그러한 중에 주체성 확립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실현에 도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안범희, 1985).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대인관계에 관하여 연구한 Heider(1964)는 대인관계를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였다. 대인관계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안정을 도모하고 협동, 상호이해 및 역할, 교환, 도움을 주고받음, 의미의 추구를 통해 만족스러움, 어떠한 목적의 달성이 이득을 추구하며 그러한 중에 주체성의 확립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실현에 도달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신 프로이트 학파가 주장하는 대인관계의 목적은 ‘만족의 추구’와 ‘안전의 추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였으며 안전추구는 인간이 지니게 되는 필수적인 만족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이것을 행할 시에 나타나는 정서적인 교류는 명료한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대인관계가 불안할 시에는 가학성, 파괴성, 고착 등의 기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염영옥, 1999).

형태주의 학파에서는 형평을 유지하는 것을 대인관계의 목적으로 보았으며 실존주의적 입장에서는 대인 관계의 목적을 종합적인 인간, 주체성의 확립에 두었다(이혜성, 1982).

인본주의에서는 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시각의 차이로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본다. 이렇게 형성된 대인관계는 사회적응과 자아실현, 자기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상징적 상호주의 학파는 대인관계는 사회적 소산으로 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안범희, 1985).

신프로이트학파를 계승하며 대인관계이론에 중요한 역할을 한 Leary(1957)는 대인행동이 기본적으로 생존기능(survival function)을 지니고 있으며, 대인적인 불행에 대한 공포는 파멸의 공포, 또는 방기(abandonment)에 대한 공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진화론이 설명하는 생존의 충동에 대한 심리학적인 표현은 불안이라는 것이며, 인간이 겪는 최초의 불안은 방기라고 하는 대인관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Krech(1962)는 대인관계성향을 세 가지 대분된 성향영역 즉 역할성향(role disposition), 사회관계성향(sociometric disposition), 표현적 성향(expressive disposition)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 영역마다 4개의 하위영역을 두고 있다. 첫 번째 역할성향 영역은 주도권, 지배, 사회적 술선수법,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사회관계성향 영역은 타인의 수용(反: 거부)영역, 사교성(反:비사교성)영역, 우호적(反:비우호적)영역, 동정적(反: 비동정적)영역으로 나누었다. 세 번째 표현적 성향 영역으로 경쟁적, 공격적, 자의식적, 과시적인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Alden 외(1990)는 Horowitz(1988)가 포괄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6개 하위척도로 나누어 총 127문항을 개발한 것을 통계적 절차를 통해 8개의 하

위차원인 지배성, 보복성, 냉담성, 사회적 회피성, 비주장성, 과배려성, 간섭성을 64문항으로 IIP-C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각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그 영역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대인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김재은(1974)이 Leary(1957)의 대인행동 모형에 기초하여 만든 대인관계 진단척도를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재은(1974)의 연구에서 이 척도는 8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선모(1980)의 연구에서 척도는 만족도, 의사소통, 신뢰성, 친근성, 개방성, 이해성, 민감성의 7가지 하위영역의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대인관계의 하위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범희(1985)는 기본적으로 Leary(1957)와 Krech(1962)의 이론을 중심으로 세 가지 성향(역할, 사회관계, 표현)으로 나누고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기존분류의 테두리 안에서 재분류 하였다.

대인관계성향 복합모형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성향을 3가지 영역인 역할성향, 사회관계성향, 표현성향으로 나누고 '지배-우월, 독립-책임감, 동정적-수용, 사교-우호, 경쟁-공격, 과시-자기도취, 반항-불신 성향'인 7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렇듯 대인관계성향 복합모형은 대인관계의 긍정적·부정적인 성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반대되는 성향도 제시하여 대인관계성향을 보다 다각적이고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서경희(1995)는 기존의 검사 및 척도 문항들 중에서 자기 지향적, 타인지향적, 규범 지향적 태도를 반영해 주는 문항들을 수집하였는데 이 척도는 자기지향적 태도 10문항, 타인지향 태도 10문항, 규범지향적 태도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기정과 이정희(1999)는 대학생들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 상담의 효과 연구에서 총 200문항 중 대인관계 영역과 관련된 53문항에서 중도적

23문항, 사교성 24문항, 자신감 16문항의 세 하위 영역의 검사결과, 대학생의 대인관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창대와 김수임(2001)은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Buhrmester 외(1988)의 대인관계 능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다양한 대인관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처음 관계 맺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인 지시와 조언 및 대인갈등 다루기의 5가지 영역에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환 외(2002)는 IIP-C(Alden 외, 1990)를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검사-원형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circumplex scale: KIIP-C)를 개발하였다. 하위척도는 크게 원형(circumplex) 척도인 KIIP-C 8개 척도 즉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이고, 대인적 과민성, 대인적 비수용성, 공격성, 사회적인정욕구, 사회성 부족의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척도인 KIIP-PD 척도 5개로 총 13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 2) 대인관계성향과 외모관련행동

### (1) 대인관계성향과 외모관리행동

한 사람의 신체적 외모는 그 사람의 성 정체성과 더불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에게 가장 분명하고 가장 쉽게 정할 수 있는 개인특성이며(Dion 외, 1972) 특히 얼굴은 성별, 연령, 건강, 풍요, 감정을 알 수 있는 언어이외의 커뮤니케이션이다(Graham & Jouhar, 1983).

외모는 첫 인상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경쟁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외모를 가꾸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행동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

생활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김유선, 박옥련, 2009). 대인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외모의 아름다움의 효과를 인식하고 행동하게 된다.

조지숙(1992)의 연구에서는 여성은 신체적 매력에 있어 사회적으로 외모평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해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이 과도할 경우 비우호적이거나 왜곡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Snyder 외(1977)는 외모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을 하였는데 남자대학생에게 여대생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로 전화통화를 하게 한 결과, 매력적인 파트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믿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들이 “beauty is good”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자신 있고 유능한 행동들을 하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 받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반응과 거부를 당하게 된다고 하였다.

성미영(2007)은 여중생을 대상으로 외모만족도 증진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보건복지부(2009)가 개발한 ‘10대 소녀들의 외모주의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집단 상담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여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이 같은 여중생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이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매스컴의 영향이 확대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전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성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할 기회가 많아지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양계민, 1993).

자기 체형평가와 대인관계성향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김판규(2003)는

대인관계성향을 자기중심, 타인중심, 규범중심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외모만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규범 중심성향도 높게 나타났다. 또 자긍심이 높은 집단은 자기중심, 타인중심, 규범중심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자기 체형평가와 대인관계성향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경희(2011)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만족도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체형요인과 외형요인 모두 대인관계성향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외모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외모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대인관계성향과 미용행동

화장을 하는 과정에는 소속된 문화나 집단에 따른 표현이나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기준이 주어진다. 그러한 소속에는 화장규칙이나 사회적 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표현력과 사회적 관심 그리고 구체적인 관계나 장면에 대한 대인적인 동기에 따라 화장하는 의식이 형성된다. 화장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어 실제의 표출로써 실천행동이 행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대인적인 관계의 전개를 가져오는 것과 연결된다(최수경, 2007).

화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余語莫夫(1995)는 화장을 하는 여성은 맨 얼굴의 자신과는 다른 자기를 표현함으로써 자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다 활발한 대인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활발한 대인행동은 그 여성에게 자신감이나 자기 충족감을 부여하는 파급적 효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백경진과 김미영(2004)은 화장행동을 유행 지향성, 대인관계 중시, 최소

화장 및 피부관리, 대인지향, 자기만족감의 5가지 차원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는데, 연령에 따라 화장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어 유행지향 요인은 20대 집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각하는 요인이며, 대인관계지향은 40, 50대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지각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명리와 김주덕(2005) 연구에서 화장 후에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등 대인관계가 사회활동에 있어 필수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화장을 하면 활동성이 높아지고 하나의 사회적 예의로 의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화장이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사회적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줄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즉 화장은 사회적 기술을 포함한 사회적 매너의 하나라고 보는 성향이 높았다. 이와 같이 화장은 보다 나은 이미지의 자신을 만들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해 나가게 하는 힘을 가진다고 하였다.

미용치료 프로그램의 한 부분인 화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배주윤(2003)은 화장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에 맞는 긍정적인 외모를 연출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김혜정(2009)의 연구에서는 미용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정신 분열증 환자의 대인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화장의 대인관계 만족감 향상과 의사소통, 이해성, 타인에 대한 개방성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영란(2010)의 연구에서도 자가 미용 교육프로그램의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을 통한 만족감이 타인과의 의사소통,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여대생의 미용관리에 도움을 주어 전체적인 여대생의 미용관심도를 높이고 높아진 미용관심도를 통해 외모관리태도의 향상과 사회 심리적 변인의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자아존중감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의사소통 이해와 관계이해를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조은(2003)의 연구에서는 화장행동이 여성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끼쳐

여성들이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 대인관계가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은 중요한 업무나 대인관계를 기피한다고 하였으며 여성들은 단순한 화장의 시행 여부보다는 화장만족도에 의해 공통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대인관계, 업무자신감 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대인관계의 적극성 측면에서도 낯선 사람에 대한 태도 및 대화의 참여정도,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도, 사람이 많은 장소에 대한 포용력,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항목에 대한 결과를 산출한 결과, 오늘의 화장이 만족스러울수록 대인관계의 적극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고 하였다.

최수경(2007)은 화장과 심리적 측면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그 중 대인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미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인지의 욕구가 낮을수록 심미적 가치관이 높고, 종교적 가치관이 낮을수록 기혼이고 직업이 있으며, 미디어 접촉도가 많을수록 대인지향을 중요시 하였다. 그리고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미의 욕구와 인지의 욕구는 강한 것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인지의 욕구와 종교적 가치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일수록 신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미의 욕구는 낮고 심미적 가치관은 높은 것으로, 직업이 있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인지의 욕구는 낮은 것으로, 미디어 접촉도가 많을수록 미의 욕구, 인지의 욕구, 신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매개변인을 통해서 대인 지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권현숙(2000)은 30~40대를 전후한 여성의 얼굴화장행위와 관련된 심리적 제 요인이 화장하는 여성의 만족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였는데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화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화장행위에 대해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있는 30~40대의 중년 여성들의 경우 얼굴화장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중년여성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증진 행위 요소를 고려할 만한 타당성이 있음을 제시하

었다.

이원진(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여성에게 화장의 심리적 효용성과 노인 여성과 관련된 심리적 제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노인은 화장을 하면 기분이 전환되고 마음이 안정스럽다는 것에 높은 수치가 나와 화장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적 안정감 측면의 만족감 보다는 사회적 관계의 적극적 측면의 만족감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화장 후의 긍정적 대인관계는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정광하(2006)의 연구에서는 20대 여성들의 이미지 변화의 중요 요소인 화장이 이미지 효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화장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이 생기며 자신의 외적 이미지 연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화장에 따른 사회성의 경우에는 화장을 통해 타인에게 자기다움을 더 강조할 수 있으며 외모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화장은 인간의 외적 아름다움을 충족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인관계, 심리적, 만족감 등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최은정(2007)은 화장이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조사 대상자들은 화장 전보다 화장 후의 얼굴외모에 더 만족하고 있었으며, 화장을 했을 때 의욕적이 되며 생각과 행동도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화장은 대인관계에서 더 좋은 인상을 남기고 더 나은 대우를 받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혜원(2006)은 의복관여와 헤어태도 및 헤어관여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여기서 헤어태도를 헤어유행동조지향, 헤어개성지향, 헤어향상성지향, 헤어대인지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헤어태도 차원간의 중요도 차이를 밝힌 결과, 헤어지향성과 헤어대인관계성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헤어로 자신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소비자가 자신의

선천적인 외모조건 등의 개별적 특성을 인식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고수하는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밀착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를 해나가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는 헤어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헤어스타일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이 크며 개인의 이미지를 구성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얼굴을 새롭게 보완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의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장규순, 2008).

한편 직장인의 외모와 대인관계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창희(2007)는 외모,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승진의 단편적인 관계들을 하나의 인과모델로 묶음으로써 이들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성공과 관련이 있다면 단지 외모의 매력 때문만이 아니라 외모가 자아존중감이나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즉 매력적 외모를 가진 여성은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그것이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게 되고 원활한 대인관계는 승진에도 남들보다 상대적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미용행동의 심리학적 효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 심리적 측면과 많은 연관을 갖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미용행동이 단지 외모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생활만족도와 외모관련 행동

#### 1)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만족이라는 개념에서부터 도출되었는데 Campbell(1976)에

의하면 만족은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만족은 개인의 내적 현상이며 감정적 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대나 보상의 일치도를 만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로 정의하기 보다는 측정도구나 여러 가지 조작이 가능한 것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것으로서 결국 만족을 특별한 면에 대하여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파악하고 있다(조완규, 1993).

생활만족도라는 개념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사기(morale), 행복감(happiness), 심리적 안녕 상태(psychological well-being), 적응(adjustment) 등의 단어와 혼용되어 왔으며, 생활만족도를 삶의 만족도와 어떻게 구별 정의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계속 연구의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Mannell & Dupuis, 1996).

시간이라는 잣대를 이용하였을 때 만족은 과거, 행복은 현재, 사기는 미래와 관련된 개념이다. 그리고 심리적 안녕 상태의 지속성이라는 잣대를 적용하여 보면, 만족과 사기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된 인지상태인 반면, 행복은 일시적인 정서상태의 개념이다(구현진, 2008).

생활만족이란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Neuqarten(1961)에 의하면 성공적인 노후의 귀결로써 얻어지는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긍정적인 자아관념을 가지고 자신의 현재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ampbell(1976)은 생활만족이란 생활 전반에 대한 실재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Graney(1975)는 생활만족감과 사기, 행복감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파악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사기는 용기, 훈련, 확신, 열의 및 곤란

을 인내하는 의지의 정신 상태이며 행복감은 현재의 유쾌한 감정을 느끼는 일시적인 기분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데 반해 생활만족은 사기, 행복감과 유사하기는 하나 좀 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Medley(1980)는 생활만족도를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개인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대가 형성되며 이러한 기대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Palmore(1979)는 미래 생활만족의 최선의 예언자는 개인이 느낀 초년의 생활만족이라고 주장한다. 즉 개인의 과거의 생활이 생활만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들고 있다.

Liu(1980)은 생활만족도는 생활주체자가 경험하는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느낌의 복합적 상태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현재 사회, 경제적 지위와 활동에 대해 갖는 만족감 또는 주생활영역에서의 현실과 목표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자신이 바라는 삶에 대한 각각의 표준에 의해 정해지는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나 경제복지의 주관적측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Diener(1985)는 생활만족이란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진행된 생활만족도에 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이효재 외(1979)는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적어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영상을 갖고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윤진(1982)은 노인들의 심리적 적응, 정신건강의 수준, 심리적 행복과 복지상태 등 ‘노년기의 삶의 질’ 연구를 위해 생활만족도 척도를 제작하

였다. 이 척도는 감정부문 8문항, 경험부문 12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은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재인(1986)의 연구에서는 생활만족의 개념을 “후기 성인의 지적, 신체적, 정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의 생활에 대한 후기 성인이 느끼게 되는 주관적인 만족의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최성재(1986)는 생활만족도를 개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의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정의 하였으며 그는 이와 같은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토대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한국형 생활만족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과거관련 만족도 6문항, 현재관련 만족도 9문항, 미래관련 만족도 5문항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 점수를 합하였을 때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도록 구성되어 있다.

조완규(1993)는 생활만족도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성취감을 느끼며 과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매일의 생활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 또는 감정을 느끼며 유지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오현숙(2003)의 연구에 의하면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고 과거를 비롯하여 현재에 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만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임창희(2005) 연구에서는 “개인에게 행복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주관적인 안녕감, 만족은 사회적, 철학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각기 표현을 달리 했을 뿐 같은 개념이며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생활, 그에 대한 만족 또는 행복에 대한 개인 자신의 평가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정서의 우세성과 생활 중에 경험하는 신체, 정신, 사회, 경제측면에 대한 개인이 지각할 주관적 안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구현진(2008)은 “생활만족도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즉,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생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임점주(2010)는 생활만족도는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 또는 일종의 태도로써 이는 심리적요인과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의 정신적인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 2) 생활만족도와 외모관련행동

최근 한국 사회는 외모 지상주의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성들의 외모가 하나의 자본이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상현, 1999).

외모란 신체 각 부위의 생김새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이는 전체모습을 의미하며(이인자 외, 2001)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외감을 갖게 되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외모가 중시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은 신체를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외모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의복, 헤어스타일, 화장, 성형수술 등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더해진다고 할 수 있다(이명희, 2009).

Lennon과 Rudd (1994)는 이상적인 외모를 위한 노력은 자아존중감을 상승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적절한 외모관리는 그 사람의 일에 대한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믿음 등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생활 속에서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고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박수진, 2006).

메이케이 코스메틱사는 여성의 외모 가꾸기가 마음가짐까지 향상 시킬

수 있는 지를 실험을 해 본 결과, 여성은 더 아름다워 보이고 자신이 또 그렇게 느끼게 될 때 기분도 상승되고 삶에 변화를 일으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Ash, 2003).

이수경과 고애란(2006)은 신체적 외모는 자기평가와 사회적 비교 대상이 되며 외모의 긍정적인 변화가 스트레스의 원인을 감소시켜주고 자기만족감을 높여줌으로써 행복감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중년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전현진과 정명선(2008)은 중년여성들도 젊은 여성 못지않게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다양한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의 신체관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고, 이러한 외모의 개선은 중년여성의 생활에 활력을 더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외모가 하나의 자산이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나이든 여성들도 외모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영숙과 박현정(2009)은 외모가 중요시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신체는 갈수록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해지고 있으며 외모관리의 성공적 수행은 삶 자체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외모 만족은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에 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명희(2009)는 청소년의 외모관심, 외모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여자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이나 일반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모관심 변인들 중에서 체중관심이 여자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게 하여 생활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외모만족도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청소년기에 적절한 외모관리를 통하여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의복은 자아의 한 구성요소이며, 자아가 형성되고 확인되는 외모의 한 측면으로 자기에 대한 정체감, 기분, 태도를 전달하는 의미있는 상징일뿐 아니라 자기가치, 자존심의 표현으로 지각되며(Sontag & Schlater, 1982) 의복을 통하여 신체를 보완하거나 자기를 표현하게 된다(Rudd & Lennon, 2000).

노인층 여성의 의복행동을 다룬 유경숙(1984)의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 수준의 결정요인은 “경제적 수준, 사회적 활동, 건강상태, 가족 내의 역동적 관계이고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생활만족도는 의복관심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였다. 박미애(1987)는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노인일수록 자신이 소유한 의복 및 의복생활에 만족하며 신체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의복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고 생활에 만족할수록 기성복에 대해 불만족하였다고 하였다.

이혜숙(1987)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활동, 생활만족도,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사회활동을 많이 할수록 생활에 만족할수록 의복의 미적, 심리적, 사회적인 면을 중시하고 의복에 대한 태도가 진보적이라고 하여 생활만족도와 의복행동에 있어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노인의 의복행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한 김재숙과 이혜숙(1989)의 연구에서는 성과 관계없이 노인들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생활에 만족할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의복만족도 및 의복디자인 선호도를 연구한 김진구 외(1996)는 의복만족도의 세요인인 사회성 및 외모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모두에서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순구(1995)의 연구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복행동과 자아존중도 및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다루었는데 성인집단에서의 의복행동과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노인

집단에서는 생활만족도가 의복행동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특히 노인기는 건강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련이 깊어 적극적인 의생활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황진숙과 김윤희(2006)는 외모관리 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의복을 통한 외모관리 집단이 외모관심, 체중우려,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 의복이 외모관리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주었다.

한편, 의복보다 변화시키기 쉽고 다양하게 자기 연출을 할 수 있는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조기여, 유태순, 1997) 우울증이나 신경성 스트레스를 지닌 사람들에게 색조화장 등의 화장요법을 실시한 결과, 자신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Graham & Jouhar, 1983). 광형심 외(2001)는 화장은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만족감이라든지 자기 충족감 및 정신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생산의욕을 향상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전진수(2003)의 실버여성의 화장태도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실버여성이 과거에 비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생활영역을 넓혀 다양한 삶의 보람을 추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생활을 즐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화장의 심리사회적 의미를 다룬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는 20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녀모두 화장과 같은 외모 가꾸기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이자 성공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심지어는 아름다운 외모는 그 자체가 성공적인 삶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은(2003)은 일상생활에서의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 경미한 심리적 요소가 화장을 통해 기분이 전환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79%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 화장이 여성들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

으며 이는 여성들의 화장행동이 여성들 스스로의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여러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실제적인 효용을 나타내며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박미경(2005)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미적 감각을 표현함에 있어 화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체로 만족감을 갖고 있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최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화장 전보다 화장 후의 얼굴외모에 더 만족하고 있었으며 화장을 통해서 자신의 결점을 감출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얼굴이 예뻐지면 생활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화장을 했을 때 보다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화장이 잘 된 날은 더 기분 좋게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보경(2007)의 연구에서는 자가 미용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노인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고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뷰티케어 프로그램을 연구한 최영숙(2010)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 행복감, 생활만족도 향상과 우울감소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해림(2010)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 미용 프로그램이 여성노인들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우울정도의 개선에 효과적이다”라고 하였다.

노년기 여성의 외모관심도와 외모관리 행동을 조사하고 미용 요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정신적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임정미(2011)는 미용요법 프로그램이 노년기 여성들에게 외모향상을 추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정신건강 등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이는 앞서 연구한 김보경(2007), 최영숙(2010), 이해림(2010), 김보라(2010)의 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헤어스타일은 개인의 자신감과 외모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며(이명희, 2004) 의복, 화장과 함께 외모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의미가 있다(양숙희, 최연희, 2003).

이수경과 고애란(2006)의 연구에서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신체자체가 중요해진 이 시대에는 신체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체이미지는 자기존중감 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관리 행동은 신체의 아름다움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이 점차 증가하여 오늘날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은 보편화 되는 추세에 이르렀다(이명희, 2009).

정진봉(1999)의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성형욕구가 높았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여자 청소년은 성형수술에 대해 허용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진경란과 이명희(2002)의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가 낮으며, 과시 및 지배욕구가 높은 여성일수록 성형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진(2005)에 따르면 중년여성들은 여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용성형수술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이는 성형수술이 신체의 매력성을 증가시키는 수단인 동시에 근본적인 외모를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가져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이현옥, 구양숙, 2006).

종합적으로 볼 때 외모관리행동은 개인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외모관리를 통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와 미용행동의 관계를 파악한다.**

- (1)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 행동, 화장동기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 이미지, 화장 이미지 선호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 선호, 화장수준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행동, 화장동기의 관계를 파악한다.
- (5)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이미지, 화장 이미지 선호의 관계를 파악한다.
- (6)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선호, 화장수준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미용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 (1) 연령, 결혼여부, 학력, 사회계층, 거주지에 따른 헤어스타일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 (2) 연령, 결혼여부, 학력, 사회계층, 거주지에 따른 화장동기의 차이를 알아본다.
- (3) 연령, 결혼여부, 학력, 사회계층, 거주지에 따른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알아본다.
- (4) 연령, 결혼여부, 학력, 사회계층, 거주지에 따른 화장 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알아본다.

- (5) 연령, 결혼여부, 학력, 사회계층, 거주지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의 차이를 알아본다.
- (6) 연령, 결혼여부, 학력, 사회계층, 거주지와 화장수준의 관계를 알아본다.

### 3) 인구통계적인 변인,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가 미용행동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 (1) 인구통계적인 변인,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가 헤어스타일행동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 (2) 인구통계적인 변인,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가 화장동기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 2. 용어정의

### 1) 미용행동(behavior)

미용행동이란 자신의 외모 중 헤어스타일과 화장을 통해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인간 행동으로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심리상태를 미용을 통해 미적으로 표현한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미용행동은 연구목적에 맞게 헤어스타일행동, 화장동기, 헤어스타일 이미지와 화장 이미지 선호, 헤어스타일 선호, 화장수준으로 하였다.

#### (1) 헤어스타일행동

헤어스타일행동은 유행성, 대인지향, 동조성, 개성의 측면을 포함한다.

- ① 유행성 : 유행에 관심이 많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새로 유행한

헤어제품을 먼저 구입하여 최신 유행에 맞추려고 신경을 쓰는 행동이다.

- ② 대인지향 : 사회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여성의 기본적인 예의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행동이다.
- ③ 동조성 : 소속감의 표시로써 소외 되지 않기 위하여 타인과 유사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려는 행동이다.
- ④ 개 성 :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때 독특한 스타일이나 색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행동이다(최수경, 2007).

## (2) 화장동기

화장을 함으로써 얻어진다고 기대되는 좋은 이미지나 효과를 말하며(이화순, 2002)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표현, 타인에 대한 예의수행, 자신감증대를 포함한다.

## (3) 헤어스타일 이미지와 화장 이미지 선호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는 여러 가지 헤어제품과 도구를 이용하여 변화된 여러 가지 이미지 간의 선호도를 의미한다.

화장 이미지 선호는 자신이 화장을 했을 때 느끼는 변화된 이미지(이화순, 2002)간의 선호도를 의미한다.

## 2) 대인관계성향(interpersonal relation)

대인관계는 소수인,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개인이 타인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자각하고 행동하는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이다(Heider, 1964).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성향 문항은 안범희(1985)의 「대인관계성향 검사」를 선택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주요영역과 7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총 84문항으로 되어있다. 3가지 주요영역은 역할성향, 사회관계성향, 표현성향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지배-우월, 독립-책임감, 동정적-수용, 사교-우호, 경쟁-공격, 과시-자기도취, 반항-불신 성향'인 7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였다(안범희, 1985).

본 연구에서는 역할성향의 하위요인 중 지배적-우월적 성향, 사회관계성향에서는 동정적-수용적 성향, 사교적-우호적 성향, 표현성향에서는 과시적-자기도취적 성향을 선택하였다.

- (1) 역할성향(role disposition) : 자신의 권리에 대한 옹호 및 자기주장, 집단지도력, 독립성 등을 나타낸다.
  - ① 지배적 : 지시, 충고, 자기주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② 우월적 : 독단, 자만, 지나친 자존감의 의미를 담고 있다.
- (2) 사회관계성향(sociometric disposition) : 타인의 수용, 사교적,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 타인의 느낌에 대한 유의한 반응 등을 나타낸다.
  - ① 동정적 : 관용적, 민감, 약자보호적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② 수용적 : 타인의 장점존중, 포용력, 성심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③ 사교적 : 개방적, 활동적, 친밀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④ 우호적 : 친절, 동조적, 협조적의 의미를 담고 있다.
- (3) 표현성향(expressive disposition) : 경쟁성, 공격성, 타인의 행동에 대한 자의식적, 과시적 반응행동 등을 나타낸다.
  - ① 과시적 : 자기노출적, 과장적, 자기자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② 자기도취적 : 지나치게 낙천적, 도취적, 즉흥적의 의미를 담고 있다(안범희, 1985).

### 3)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주관적 감정 상태를 의미하며(장지선, 2009),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행복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신체적 영역 : 건강만족, 외모만족, 자신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2) 사회적 영역 : 자기 자신에서부터 가족, 이웃들에 이르기까지의 만족감을 포함한다.
- (3) 경제적 영역 : 하루생활 지출, 한 달 수입, 생활조건, 타인에 대한 우월감 등을 포함한다.
- (4) 행복감 영역 : 주관적이고 긍정적이며 개인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나타낸다.

## 3. 측정도구

### 1) 미용행동

#### (1)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행동은 이화순(2002) 연구에서 유행성 1문항, 최수경(2007)의 연구에서 유행성 3문항, 대인지향 4문항, 동조성 4문항, 개성 4문항, 으로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다(표 1). 최수경의 문항은 화장행동을 헤어스타일 행동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헤어스타일 행동 문항에 대한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표 8).

<표 1> 헤어스타일 행동의 문항

변인	내 용	출 처
유행성	TV광고나 잡지에 나오는 모델의 최신 헤어스타일을 해보고 싶다	최수경 (2007)
	유행에 맞는 헤어스타일은 멋있어서 따라 해보고 싶다.	
	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 할 때 현재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따른다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다	이화순 (2002)
대인지향	헤어스타일에 신경쓰는 것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한다	최수경 (2007)
	나는 나의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남이 날 평가할 때 내 헤어스타일을 중시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과 사귀는 데 품위 있는 헤어스타일이 도움이 된다	
동조성	모임에 가서 내 헤어스타일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불안해진다	최수경 (2007)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	
	내가 속한 집단의 헤어스타일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나는 낯선 사람들과 만날 때 대체로 사람들과 비슷하게 헤어스타일을 하려고 신경 쓴다	
개성	헤어스타일을 연출 할 때 남을 의식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과감한 헤어스타일이 좋다	최수경 (2007)
	헤어컬러는 남과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색상을 주로 선택 한다	
	나는 헤어스타일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편이다	
	나의 헤어스타일은 나의 개성을 돋보이게 한다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는 이화순(2002)의 연구에서 7문항, Thurston(1990)의 연구에서 1문항, 연구자가 작성한 3문항으로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표 2). 11개 문항은 각각 개별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헤어스타일 선호는 이효숙(2008)의 연구에서 10문항을 택하여 사용하였으며(표 2), 각각 개별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표 2> 헤어스타일 이미지, 화장 이미지 선호와 헤어스타일 선호의 문항

변인	내 용	출 처
헤어스타일 이미지, 화장 이미지 선호	단정한	이화순(2002)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Thurston(1990)
	귀여운	연구자
	성숙한	
	세련된	이화순(2002)
어려보이는	연구자	
헤어스타일 선호	짧은 컷 스트레이트 단발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 짧은 컷 웨이브단발 웨이브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 층이 있는 롱 웨이브 내려온 형태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태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	이효숙 (2008)

(2) 화장

본 연구에서 화장동기는 이화순(2002)의 연구에서 변화의 즐거움 4문항, 자기과시표현 4문항, 타인에 대한 예의수행 3문항을 택하여 11문항을 사용하였고, 최수경(2007)의 연구에서 자신감증대 4문항을 택하여 총 15문항을 사용하였으며(표 3), 화장동기에 대한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표 9).

<표 3> 화장동기의 문항

변인	내 용	출 처
변화의 즐거움	화장을 하면 변화의 즐거움이 있다 화장을 하면 자신의 인상이 바뀌는 것 같다 화장을 하면 기분전환이 된다 화장을 하면 표정이 밝아진다	이화순, (2002)
자기가치 표현	화장을 하면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 화장을 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다 화장을 하여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동성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화장을 한다	
타인에 대한 예의수행	화장을 하는 것을 여성의 기본적인 예의이다 화장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화장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예의있게 보인다	
자신감 증대	화장을 하고 나면 의욕이 생긴다 화장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 보다 자신 있게 행동한다 화장을 하고 나면 능력 있어 보인다 화장을 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최수경 (2007)

화장 이미지 선호는 헤어스타일 이미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총 11개 문항을 사용 하였으며, 11개 문항은 각각 개별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화장수준은 색조화장 정도와 화장시간을 조사하였으며, 2개 문항을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 2) 대인관계성향

대인관계성향은 안범희(1985)의 연구에서 택하였다. 역할성향의 지배우월이 6문항, 사회관계성향의 동정수용과 사교우호가 각각 6문항, 표현성향의 과시도취가 6문항 선택되었다. 각 변인의 Cronbach의  $\alpha$  신뢰도계수는 지배우월이 .680, 동정수용이 .520, 사교우호가 .677, 과시도취가 .712였으며, 동정수용 성향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편이었다(표 4).

<표 4> 대인관계성향의 문항

변인	문항수	내 용	신뢰도
지배우월	6	남들에게 충고나 조언을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시킬 만한 사람이 있으면 시키길 잘 한다 어떤 모임에서나 내 주장을 이루려고 애쓴다 남들로부터 잘난 척한다는 말을 듣는다 친구들보다는 내가 유능하다는 생각으로 행동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680
동정수용	6	남의 느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를 잘한다 불쌍한 친구를 보면 도와주기를 좋아한다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돈을 준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친구들은 고민이 있으면 나를 찾아온다 나에게 잘못된 친구들보다도 잘 어울린다	.520

사교우호	6	사교적인 모임에 참석하기를 좋아한다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잘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들로부터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내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따른다 여럿이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 한다	.677
과시도취	6	남의 주목을 끌기 위해 가끔 유별난 행동을 하는 수가 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의견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과장해서 말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집안일이나 나에게 대한 자랑을 한다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하는 눈치다 사람들은 나를 꽤 관심 있게 보는 편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우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712

### 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장지선(2009)의 연구에서 신체적 만족 4문항, 사회적 만족 4문항, 경제적 만족 4문항을 사용하였다. 행복감은 이종길(1992)의 연구에서 2문항, 김재인(1987)의 연구에서 1문항, 이희정(2004)의 연구에서 2문항을 연구자가 수정하여 총 17문항을 사용하였다(표 5). 생활만족도에 대한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표 10).

<표 5> 생활만족도의 문항

변인	내 용	출 처
신체적	나는 나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만족한다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나는 균형있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남들보다 좋은 체력을 갖고 있다	장지선 (2009)
사회적	나는 새롭고 다양한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어서 만족한다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한다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장지선 (2009)
경제적	나는 아주 좋은 생활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있다 나는 한달 수입에 만족한다 나의 하루 생활 지출 정도에 만족한다	장지선 (2009)
행복감	나는 나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얻고 있다고 느낀다.	이희정 (2004)
	나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이종길 (1992)
	만일 내 삶을 다시 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데로 살겠다.	
나의 삶은 대체로 지루하고 피곤한 나날이었다	김재인 (1987)	

#### 4) 인구통계적 변인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가정전체의 한 달 평균소득, 사회계층과 거주지를 조사하였다. 가정 전체의 한 달 평균소득은 150만원 미만에서 900만 원 이상까지 9단계로 나누었고, 사회계층은 피험자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가를 평가하는 주관적 방법(강혜

원, 1995)을 사용하였으며,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을 각각 상·중·하의 9 단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 4.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과 강원도 지역의 20대~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층 선정에서는 20대~40대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이미 시작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활발한 대인관계와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시기라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조사시기는 2010년 4월~6월 이었고 회수된 717부중에서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20대 269부, 30대 186부, 40대 219부 즉 674부를 최종 통계분석자료에 사용하였다.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의 분포는 <표 6>과 같다.

<표 6>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분포

변인	항목	N(%)
연령	20-24세	185(27.4)
	25-29세	84(12.5)
	30-34세	71(10.5)
	35-39세	115(17.1)
	40-44세	131(19.4)
	45-49세	88(13.1)
학력	고졸이하	150(22.3)
	대학생	150(22.3)
	대학졸	284(42.1)
	대학원졸	90(13.4)
사회계층	하	251(37.2)
	중	288(42.7)
	상	135(20.0)
결혼여부	미혼	331(49.1)
	기혼	343(50.9)
거주지	서울 및 서울근교	309(45.8)
	강원도	365(54.2)
계		674(100.0)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24세가 27.4%(185명), 25-29세가 12.5%(84명), 30~34세가 10.5%(71명), 35~39세가 17.1%(115명), 40~44세가 19.4%(131명), 45~49세가 13.1%(88명)였다. 학력은 대학생이 22.3%(150명), 고졸 이하가 22.3%(150명), 대학졸업이 42.1%(284명), 대학원졸업이 13.4%(90명)였다. 사회계층은 통계처리과정에서 항목을 재분류하여 상류층과 중의 상층을 상류층으로 정하였고, 중의 중층을 중류층으로 정하였으며, 중의 하층과 하류층을 합하여 하류층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하류층은 37.2%(251명), 중류층은 42.7%(288명), 상류층은 20.0%(135명)로 나타났다. 결혼여부

는 미혼이 49.1%(331명), 기혼이 50.9%(343명)이며, 거주지는 서울 및 서울근교가 45.8%(309명), 강원도가 54.2%(365명)였다.

##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헤어스타일행동, 화장동기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생활만족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헤어스타일행동, 화장동기,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 화장 이미지 선호, 색조화장수준, 화장시간과 대인관계성향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넷째, 인구통계적 변인, 헤어스타일행동, 화장동기,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 화장 이미지 선호, 헤어스타일 선호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인구통계적 변인, 색조화장수준, 화장시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X^2$ -test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여성의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 연령, 사회계층, 학력, 거주지가 헤어스타일행동과 화장동기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자료분석 내용 및 측정방법

No	내 용	측정방법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2	헤어스타일행동, 화장동기의 차원을 파악	요인분석, Cronbach의 $\alpha$ 신뢰도 검증
3	헤어스타일행동, 화장동기,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 화장 이미지 선호,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와 색조화장수준, 화장시간	Pearson의 적률상관 관계
4	인구통계적 변인, 헤어스타일행동, 화장동기, 헤어스타일 이미지 및 화장 이미지 선호, 헤어스타일 선호 차이 파악	t-test, 일원 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
5	인구통계적 변인, 색조화장수준, 화장시간의 관계	$\chi^2$ -test
6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 연령, 사회계층, 학력, 거주지가 헤어스타일행동과 화장동기에 미치는 인과관계	다중회귀분석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헤어스타일 행동, 화장동기, 생활만족도의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헤어스타일 행동의 16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요인 1은 동조성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71 이상이고 모두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2.68이고 전체변량은 16.73%였다. 요인2는 대인지향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8 이상이고 모두 4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2.46이고 전체변량은 15.38%였다. 요인3은 유행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47 이상이고 모두 4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2.33이고 전체변량은 14.53%였다. 요인4는 개성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35 이상이고 모두 4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58이고 전체변량은 9.89%였다. 각 변인의 Cornbach's  $\alpha$ 신뢰도는 .79, .69, .79, .53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헤어스타일 행동 변인은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의 4개 요인으로 결정되었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는 최수경(2007)의 화장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화장동기 15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 1개를 제외한 14개 문항에 대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요인이 도출되었다.

<표 8> 헤어스타일 행동의 요인분석

(N=674)

요인 1. 동조성	요인부하량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	.85
나는 낯선 사람들과 만날 때 대체로 사람들과 비슷하게 헤어스타일을 하려고 신경 쓴다	.76
모임에 가서 내 헤어스타일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불안해진다	.73
내가 속한 집단의 헤어스타일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 한다	.71
전체변량(%)=16.73    누적변량(%)=16.73    고유치=2.68    a 신뢰도=.79	
요인 2. 대인지향	요인부하량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는 것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한다	.78
남이 날 평가할 때 내 헤어스타일을 중시한다고 생각한다	.69
사람들과 사귀는 데 품위 있는 헤어스타일이 도움이 된다	.64
나는 나의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58
전체변량(%)=15.38    누적변량(%)=32.11    고유치=2.46    a 신뢰도=.69	
요인 3. 유행	요인부하량
TV광고나 잡지에 나오는 모델의 최신 헤어스타일을 해보고 싶다	.82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다	.80
유행에 맞는 헤어스타일은 멋있어서 따라 해보고 싶다	.71
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 할 때 현재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따른다	.47
전체변량(%)=14.53    누적변량(%)=46.64    고유치=2.33    a 신뢰도=.79	
요인 4. 개성	요인부하량
헤어스타일을 연출 할 때 남을 의식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과감한 헤어스타일이 좋다	.82
나는 헤어스타일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편이다	.69
나의 헤어스타일은 나의 개성을 돋보이게 한다	.47
헤어컬러는 남과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색상을 주로 선택 한다	.35
전체변량(%)=9.89    누적변량(%)=56.53    고유치=1.58    a 신뢰도=.53	

요인 1은 자신감증대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49 이상이고 모두 6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2.97이고 전체변량은 21.22%였다. 요인

2는 예의성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66 이상이고 모두 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2.65이고 전체변량은 18.93%였다. 요인 3은 변화의 즐거움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47 이상이고 모두 5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2.64이고 전체변량은 18.87%였다. 각 변인의 Cornbach's  $\alpha$ 신뢰도는 .84, .72, .78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화장동기 변인은 자신감증대, 예의성, 변화의 즐거움의 3개 요인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처음에 선택되었던 자기가치표현은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예의성과 변화의 즐거움은 이화순(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자신감증대는 최수경(200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표 9> 화장동기의 요인분석

(N=674)

요인 1. 자신감증대	요인부하량
동성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화장을 한다	.75
화장을 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65
화장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 보다 자신 있게 행동한다	.65
화장을 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다	.61
화장을 하여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57
화장을 하고 나면 능력 있어 보인다	.49
전체변량(%)=21.22    누적변량(%)=21.22    고유치=2.97 $\alpha$ 신뢰도=.84	
요인 2. 예의성	요인부하량
화장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7
화장을 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인 예의이다	.77
화장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예의 있게 보인다	.66
전체변량(%)=18.93    누적변량(%)=40.15    고유치=2.65 $\alpha$ 신뢰도=.72	
요인 3. 변화의 즐거움	요인부하량
화장을 하면 표정이 밝아진다	.49
화장을 하면 변화의 즐거움이 있다	.82
화장을 하면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	.76
화장을 하면 기분전환이 된다	.52
화장을 하면 자신의 인상이 바뀌는 것 같다	.47
전체변량(%)=18.87    누적변량(%)=59.02    고유치=2.64 $\alpha$ 신뢰도=.78	

생활만족도 17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1개를 제외한 16개 문항에 대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10>과 같이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10> 생활만족도의 요인분석 (N=674)

요인 1. 경제·사회적 만족	요인부하량
나는 한 달 수입에 만족 한다	.73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있다	.72
만일 내 삶을 다시 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겠다.	.69
나의 하루 생활 지출 정도에 만족 한다	.63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 한다	.56
나는 아주 좋은 생활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54
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만족 한다	.42
전체변량(%)=21.73    누적변량(%)=21.73    고유치=3.48    a 신뢰도=.82	
요인 2. 행복감	요인부하량
나는 나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얻고 있다고 느낀다.	.76
나의 삶은 대체로 지루하고 피곤한 나날이었다(R)	-.73
나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72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59
나는 새롭고 다양한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어서 만족 한다	.54
전체변량(%)=18.23    누적변량(%)=39.95    고유치=2.92    a 신뢰도=.80	
요인 3. 신체적 만족	요인부하량
나는 균형 있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77
나는 나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만족 한다	.75
나는 남들보다 좋은 체력을 갖고 있다	.68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 한다	.56
전체변량(%)=15.00    누적변량(%)=54.95    고유치=2.40    a 신뢰도=.70	

R: 역산 문항

요인 1은 경제·사회적 만족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42 이상이고 모두 7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3.48이고 전체변량은 21.73%였다. 요인 2는 행복감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4 이상이고 모두 5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2.92이고 전체변량은 18.23%였다. 요인 3은 신체적 만족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6 이상이고 모두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2.40이고 전체변량은 15.00%였다. 각 변인의  $\alpha$  신뢰도는 .82, .80, .70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활만족도 변인은 경제·사회적 만족, 행복감, 신체적 만족의 3개 요인으로 결정되었으며 처음에 설정하였던 경제적 만족과 사회적 만족은 2개의 변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경제·사회적 만족과 신체적 만족은 장지선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 2. 대인관계성향과 미용행동의 관계

### 1)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행동 및 화장동기와의 관계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행동 및 화장동기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행동, 화장동기의 상관관계 (N=674)

대인관계성향		지배우월	동정수용	사교우호	과시도취
헤어, 화장 스타일 행동	동조성	.324**	.117**	.095*	.175**
	대인지향	.132**	.214**	.278**	.201**
	유행	.222**	.158**	.285**	.277**
	개성	.198**	.200**	.209**	.316**
화장동기	자신감증대	.242**	.159**	.205**	.289**
	예의성	.090*	.109**	.184**	.143**
	변화의 즐거움	.132**	.205**	.281**	.246**

\* $p < .05$ , \*\* $p < .01$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행동과의 관계를 볼 때 지배우월 성향은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과는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대인관계에서 지배우월 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스타일행동의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을 모두 중요시하였다.

동정수용 성향은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과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동정수용적 대인관계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스타일행동의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을 중요시하였다.

사교우호 성향은 동조성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인지향, 유행, 개성과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사교우호적 대인관계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스타일행동에서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을 중요시하였다.

과시도취는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과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대인관계에서 과시도취적 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스타일행동의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을 모두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성향과 화장동기의 관계를 <표 11>에서 볼 때 지배우월과 자신감증대, 변화의 즐거움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예의성과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대인관계에서 지배우월적 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화장을 하는 동기에 있어서 자신감증대, 변화의 즐거움, 예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정수용은 자신감 증대, 예의성, 변화의 즐거움과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동정수용적 대인관계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자신감증대, 예의성, 변화의 즐거움을 위한 화장동기가 높았다.

사교우호는 자신감증대, 예의성, 변화의 즐거움과  $p < .05$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대인관계에서 사교우호적 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자신감증대, 예의성, 변화의 즐거움을 위한 화장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과시도취는 자신감증대, 예의성, 변화의 즐거움과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과시도취적 대인관계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자신감증대, 예의성, 변화의 즐거움을 위한 화장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화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余語莫夫(1995)의 연구에서 화장을 하는 여성은 맨 얼굴의 자신과는 다른 자기를 표현함으로써 자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다 활발한 대인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활발한 대인행동은 그 여성에게 자신감이나 자기 충족감을 부여하는 파급적 효과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었다. 또한 송은영(2005)의 연구와 조은(2003)의 연구에서 화장은 사회생활의 필수이며 예의이고 좋은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 2)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관계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관계에서 지배우월은 단정한 헤어스타일 이미지와  $p < .05$  수준에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헤어스타일 이미지와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헤어스타일 이미지와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대인관계의 지배우월적 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단정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선호도는 낮았으나,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선호하는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우월 성향이 높은 여성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으므로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적극적인 이미지를 지닌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N=674)

대인관계성향 헤어스타일 이미지	지배우월	동정수용	사교우호	과시도취
단정한 헤어스타일	-.089*	.088*	.120**	-.082*
화려한 헤어스타일	.278**	.120**	.148**	.264**
품위 있는 헤어스타일	.124**	.140**	.164**	.102**
독특한 헤어스타일	.296**	.103**	.074	.288**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215**	.065	.117**	-.043
여성적인 헤어스타일	-.146**	.109**	.236**	.012
전문직 같은 헤어스타일	.152**	.152**	.186**	.190**
귀여운 헤어스타일	.106**	.112**	.217**	.181**
성숙한 헤어스타일	.150**	.163**	.159**	.198**
세련된 헤어스타일	.023	.150**	.194**	.135**
어려보이는 헤어스타일	.048	.094*	.208**	.124**

\* $p < .05$ , \*\* $p < .01$

동정수용 성향은 단정한 이미지와 어려보이는 헤어스타일 이미지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헤어스타일 이미지와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동정수용적 대인관계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단정하며 어려보이는 이미지,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았다.

사교우호 성향은 단정한, 화려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

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어려보이는 헤어스타일 이미지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인관계에서 사교우호적 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단정한, 화려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어려보이는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과시도취 성향은 단정한 헤어스타일 이미지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어려보이는 헤어스타일 이미지와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과시도취적 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단정한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선호도는 낮았으나,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어려보이는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선호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대인관계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나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 이미지선호가 상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대인관계성향과 화장 이미지 선호와의 관계

대인관계성향과 화장 이미지 선호와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대인관계성향과 화장 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N=674)

대인관계성향 화장 이미지	지배우월	동정수용	사교우호	과시도취
단정한	-.091*	.114**	.070	-.063
화려한	.270**	.197**	.178**	.325**
품위 있는	.053	.159**	.154**	.120**
독특한	.235**	.126**	.112**	.289**
자연스러운	-.146**	.116**	.184**	-.045
여성적인	-.079*	.122**	.213**	.049
전문직 같은	.131**	.168**	.188**	.169**
귀여운	.117**	.077*	.165**	.171**
성숙한	.153**	.113**	.174**	.213**
세련된	.018	.163**	.211**	.155**
어려보이는	-.002	.077*	.179**	.091*

\* $p < .05$ , \*\* $p < .01$

대인관계성향과 화장 이미지 선호와의 관계를 볼 때, 지배우월은 단정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화장 이미지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화려한, 독특한,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화장 이미지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지배우월적 대인관계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단정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화장 이미지의 선호도는 낮았고, 화려한, 독특한,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화장 이미지의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정수용은 단정한,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성숙한, 세련된 화장 이미지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귀여운, 어려보이는 화장 이미지와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인관계에서 동정수용적 성향이 높

은 여성일수록 단정한,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성숙한, 세련된, 귀여운, 어려보이는 화장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았다.

사교우호는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어려보이는 화장 이미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여 사교우호적 대인관계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어려보이는 화장 이미지를 선호하는 정도가 높았다.

과시도취는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화장 이미지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어려보이는 화장 이미지와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대인관계성향에서 과시도취 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어려보이는 화장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여성들은 대인관계성향에 따라 헤어스타일과 화장 이미지선호가 유사한 특징을 나타냈으며, 이는 헤어스타일과 화장을 토탈코디네이션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4)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 선호와의 관계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 선호와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 선호의 상관관계

(N=674)

헤어스타일 선호	대인관계성향			
	지배우월	동정수용	사교우호	과시도취
짧은 컷 스트레이트	.100**	.086*	.085*	.105**
단발 스트레이트	.051	.050	.070	.064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	.068	.098*	.085*	-.018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	.030	.080*	.095*	.032
짧은 컷 웨이브	.088*	.081*	.079*	.107**
단발 웨이브	.011	.082*	.075	.058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	.002	.150**	.142**	.022
층이 있는 롱 웨이브	.022	.073	.101**	.092*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	.002	-.009	.088*	.021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태	.149**	.042	.010	.174**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	-.022	.133**	.246**	.049

\* $p < .05$ , \*\* $p < .01$

대인관계성향과 헤어스타일 선호와의 관계에서 지배우월은 짧은 컷 스트레이트,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태의 헤어스타일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짧은 컷 웨이브 헤어스타일과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지배우월적 대인관계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짧은 컷 스트레이트,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태, 짧은 컷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손지연, 2011)에서 숏 스트레이트는 적극적인 이미지로 지각한다고 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었다.

동정수용 성향은 짧은 컷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 짧은 컷 웨이브, 단발 웨이브,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의 헤어스타일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대인관계에서 동정수용적 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짧은 컷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

트레이트,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 짧은 컷 웨이브, 단발 웨이브,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우호는 짧은 컷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 짧은 컷 웨이브,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의 헤어스타일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의 헤어스타일과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인관계에서 사교우호적 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짧은 컷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 짧은 컷 웨이브,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의 헤어스타일의 선호도는 높았다.

과시도취는 짧은 컷 스트레이트, 짧은 컷 웨이브,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태의 헤어스타일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과시도취적 대인관계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짧은 컷 스트레이트, 짧은 컷 웨이브,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배우월과 과시도취성향 여성들은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선호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매력을 잘 나타내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고혜숙(2007)의 연구에서 앞머리 올림형이 매력성과 능력성 인상차원이 높이 평가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 5) 대인관계성향과 색조화장수준, 화장시간의 관계

대인관계성향과 색조화장수준, 화장시간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

관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대인관계성향과 색조화장수준, 화장시간의 상관관계 (N=674)

대인관계성향 화장	지배우월	동정수용	사교우호	과시도취
색조화장	.101**	.145**	.150**	.153**
화장시간	.089*	.001	-.022	.129**

\* $p < .05$ , \*\* $p < .01$

대인관계성향과 색조화장수준의 관계를 볼 때 지배우월, 동정수용, 사교우호, 과시도취는 색조화장수준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지배우월, 동정수용, 사교우호, 과시도취적 대인관계성향이 모두 높은 여성일수록 색조화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大坊郁夫(1996)의 연구에서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화장품 수가 많으며 화장을 하여 대인관계가 원활히 유지된다는 생각을 지닌다고 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또 대인관계성향과 화장시간과의 관계에서 지배우월과 화장시간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과시도취와 화장시간과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대인관계에서 지배우월과 과시도취적인 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화장시간이 더 길었다. 이는 타인에게 자신을 잘 드러내고자 하는 성향이 높은 여성들이 화장에 더 신경을 써서 공들여 화장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3. 생활만족도와 미용행동의 관계

#### 1)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행동 및 화장동기와의 관계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행동 및 화장동기와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행동, 화장동기의 상관관계 (N=674)

화장·헤어		생활만족도		
		경제·사회적 만족	행복감	신체적 만족
헤어스타일 행동	동조성	.155**	-.006	.089*
	대인지향	.041	.086*	.106**
	유행	.072	.060	.137**
	개성	.144**	.148**	.183**
화장동기	자신감증대	.117**	.084*	.137**
	예의성	.095*	.071	.061
	변화의 즐거움	.082*	.118**	.155**

\* $p < .05$ , \*\* $p < .01$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행동과의 관계를 볼 때 경제·사회적 만족은 동조성 및 개성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경제·사회적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스타일 행동에서 동조성과 개성을 동시에 중요시하였다.

행복감은 헤어스타일 행동 중 대인지향, 개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행복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스타일을 할 때 타인을 의식하여 대인지향을 중요시하면서 동시에 개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신체적 만족은 동조성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

고, 대인지향, 유행, 개성과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신체적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스타일행동에서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을 모두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 중에서 경제·사회적 만족과 자신감증대, 예의성, 변화의 즐거움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경제·사회적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화장을 하는데 있어 자신감증대, 예의성, 변화의 즐거움에 대한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화순(1997)의 연구에서 용돈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화장으로 얻는 만족도 역시 높다고 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었다.

행복감, 신체적 만족과 자신감증대, 변화의 즐거움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행복감, 신체적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화장동기 중 자신감증대, 변화의 즐거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문혜경, 2002)에서 신체만족도가 높은 여성은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하는 것을 즐기고 자신을 꾸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한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 2)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와의 관계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와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와의 관계를 볼 때 경제·사회적 만족은 단정한, 품위 있는, 독특한, 전문직 같은 헤어스타일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경제·사회적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단정한, 품위 있는, 독특한, 전문직 같은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았다.

행복감은 단정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성숙

한, 세련된 헤어스타일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행복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단정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성숙한, 세련된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표 17>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N=674)

생활만족도 헤어스타일 이미지	경제·사회적 만족	행복감	신체적 만족
단정한 헤어스타일	.118**	.149**	-.002
화려한 헤어스타일	.056	.032	.125**
품위 있는 헤어스타일	.121**	.076*	.045
독특한 헤어스타일	.105**	.058	.158**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018	.117**	-.010
여성적인 헤어스타일	.057	.191**	.058
전문직 같은 헤어스타일	.134**	.179**	.116**
귀여운 헤어스타일	.028	.068	.095*
성숙한 헤어스타일	.072	.101**	.096*
세련된 헤어스타일	.045	.132**	.122**
어려보이는 헤어스타일	-.012	.013	.086*

\* $p < .05$ , \*\* $p < .01$

신체적 만족은 화려한, 독특한, 전문직 같은, 세련된 헤어스타일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귀여운, 성숙한, 어려보이는 헤어스타일과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신체적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화려한, 독특한, 전문직 같은, 세련된, 귀여운, 성숙한, 어려보이는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았다.

### 3) 생활만족도와 화장 이미지 선호와의 관계

생활만족도와 화장 이미지 선호와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8>과 같다.

생활만족도와 화장 이미지 선호와의 관계에서 경제·사회적 만족은 단정한, 품위 있는, 전문직 같은 화장 이미지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성숙한 화장 이미지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경제·사회적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단정한, 품위 있는, 전문직 같은,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성숙한 화장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8> 생활만족도와 화장 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N=674)

생활만족도 화장 이미지	경제·사회적 만족	행복감	신체적 만족
단정한	.101**	.122**	.009
화려한	.051	.031	.142**
품위 있는	.156**	.143**	.083*
독특한	.075	.018	.132**
자연스러운	.084*	.181**	.053
여성적인	.089*	.172**	.085*
전문직 같은	.124**	.185**	.072
귀여운	.020	.033	.099**
성숙한	.096*	.152**	.121**
세련된	.049	.192**	.122**
어려보이는	.020	.047	.088*

\* $p<.05$ , \*\* $p<.01$

행복감은 단정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성숙한, 세련된 화장 이미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행복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단정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성숙한, 세련된 화장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신체적 만족은 화려한, 독특한,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화장 이미지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품위 있는, 여성적인, 어

러보이는 화장 이미지와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신체적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화려한, 독특한,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품위 있는, 여성적인, 어려보이는 화장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선호와의 관계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선호와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선호의 상관관계 (N=674)

헤어스타일 선호	생활만족도	경제·사회적 만족	행복감	신체적 만족
짧은 컷 스트레이트		.055	.060	.048
단발 스트레이트		.026	.027	.017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		.054	.033	.029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		.011	.046	.062
짧은 컷 웨이브		.104**	.115**	.057
단발 웨이브		.016	.051	.044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		.051	.051	.008
층이 있는 롱 웨이브		.010	.075	.055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		-.078*	.114**	-.014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태		.025	.050	.066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		.059	.144**	.074

\* $p<.05$ , \*\* $p<.01$

경제·사회적 만족과 짧은 컷 웨이브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와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경제·사회적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짧은 컷 웨이브의 헤어스타일은 선호하였으나,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

의 헤어스타일은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행복감은 짧은 컷 웨이브,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의 헤어스타일과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행복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짧은 컷 웨이브,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의 헤어스타일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짧은 컷 웨이브 스타일은 40대 후반이 선호하였으므로(표 26 참조)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면이나 인간관계가 안정된 시기이므로 경제·사회적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신체적 만족은 헤어스타일 선호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었다.

### 5) 생활만족도와 색조화장수준, 화장시간과의 관계

생활만족도와 색조화장수준, 화장시간과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생활만족도와 색조화장수준, 화장시간의 상관관계 (N=674)

화장 \ 생활만족도	경제·사회적 만족	행복감	신체적 만족
색조화장	.060	.056	.065
화장시간	-.106**	-.079*	-.001

\* $p<.05$ , \*\* $p<.01$

생활만족도와 색조화장수준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생활만족도와 화장시간과의 관계에서 경제·사회적 만족 및 행복감과 화장시간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경제·사회적 만족과 행복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화장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미용행동의 차이

#####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행동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행동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행동의 차이 (N=674)

인구통계적 변인	헤어스타일 행동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
연령	20-24세	2.31	3.33b	2.97	3.17
	25-29세	2.31	3.51ab	3.02	3.17
	30-34세	2.26	3.40b	2.99	3.26
	35-39세	2.25	3.50ab	3.00	3.20
	40-44세	2.32	3.46ab	2.99	3.15
	45-49세	2.36	3.60a	2.91	3.28
	<i>F</i>	.27	2.56*	.20	.65
학력	고졸 이하	2.32	3.52a	3.06	3.19
	대학생	2.31	3.34b	2.98	3.19
	대학졸	2.32	3.47ab	2.95	3.18
	대학원졸	2.20	3.46ab	2.93	3.27
	<i>F</i>	.62	2.13	.73	.52
사회 계층	하	2.33	3.46	3.00	3.16
	중	2.32	3.43	2.96	3.19
	상	2.22	3.47	2.98	3.27
	<i>F</i>	1.06	.18	.21	1.25
결혼 여부	미혼	2.27	3.40	2.95	3.20
	기혼	2.33	3.50	3.01	3.19
	<i>t</i>	-1.04	-1.96	-.95	.27
거주지	서울	2.23	3.41	2.87	3.18
	강원도	2.37	3.46	3.07	3.21
	<i>t</i>	-2.44*	-.52	-3.31**	-.66

\* $p < .05$ , \*\* $p < .01$ ,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연령에 따라 헤어스타일 행동 중에서 대인지향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대인지향의 헤어스타일 행동은 40대 후반 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은 여성은 헤어스타일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평가나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혜원(2006)의 연구에서 45-60세 여성들은 헤어태도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시하여 대인지향 차원이 높았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40대 여성의 경우 대인관계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신효정, 2002) 때문에 헤어스타일 행동에 있어서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력, 사회계층, 결혼여부에 따라 헤어스타일 행동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거주지에 따라 헤어스타일 행동 중 동조성과 유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가 강원도인 여성이 서울에 있는 여성보다 헤어스타일 행동에서 동조성과 유행성이 더 높았다. 이는 서울보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타인과 유사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려는 행동과 최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맞추려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헤어스타일 행동의 평균을 비교할 때 여성들은 헤어스타일을 정할 때 대인지향의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 다음 개성, 유행, 동조성의 순으로 고려하였다.

##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동기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동기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 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동기의 차이

(N=674)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동기	자신감증대	예의성	변화의 즐거움
연령	20-24세		3.49	3.45c	3.82
	25-29세		3.57	3.69ab	3.92
	30-34세		3.55	3.56bc	3.88
	35-39세		3.40	3.71ab	3.87
	40-44세		3.37	3.79a	3.76
	45-49세		3.37	3.91a	3.89
	<i>F</i>		1.67	6.28**	1.04
학력	고졸 이하		3.42	3.81a	3.83
	대학생		3.52	3.48c	3.86
	대학졸		3.44	3.71ab	3.87
	대학원졸		3.42	3.55bc	3.78
	<i>F</i>		.70	5.88**	.62
사회 계층	하		3.43	3.66	3.80
	중		3.46	3.70	3.89
	상		3.47	3.57	3.82
	<i>F</i>		.23	1.43	1.59
결혼 여부	미혼		3.50	3.55	3.84
	기혼		3.40	3.76	3.85
	<i>t</i>		1.83	-3.60**	-.19
거주지	서울		3.41	3.58	3.83
	강원도		3.48	3.73	3.86
	<i>t</i>		-1.43	-2.64**	-.53

\* $p < .05$ , \*\* $p < .01$ ,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연령에 따른 화장동기를 살펴보면 자신감증대, 변화의 즐거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예의성은  $p <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화장동기 중 예의성은 40대 여성이 가장 높았고 20대 전반이 가장 낮았다. 즉 연령이 많은 여성은 화장을 하는 것이 여성의 기본적인 예의이고,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경진, 김미영(2004)의 연구에서 40, 50대 집단이 20대보다 화장행동의 대인관계지향이 높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학력에 따라 화장동기 중 예의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졸 이하가

예의성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생이 가장 낮았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화장을 하는 동기로 예의성을 중요시하였으며, 대학생은 중요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은 아직 일반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예의성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계층에 따라 화장동기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결혼여부, 거주지에 따라 화장동기 중 예의성은  $p <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기혼여성은 미혼여성보다 화장하는 동기에 있어서 예의성을 중요시하였고, 강원도에 거주하는 여성이 서울에 있는 여성보다 더 예의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여성의 화장행동을 연구한 최수경(2007)의 연구에서 기혼여성은 미혼여성보다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강원도의 지역 특성상 서울의 대도시보다 더 밀착된 대인관계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예의성을 중요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화장동기의 평균을 비교하면 변화의 즐거움 동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예의성, 자신감증대의 순이었다. 이는 여성들이 화장을 함으로써 미적 충족이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게 되므로 변화의 즐거움 동기가 중요시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조은(2003)의 연구에서 화장의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는 본인의 미적 욕구 충족이 가장 우선 순위였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 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차이 (N=674)

인구통계적 변인		헤어스타일 이미지										
		단정한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어려보이는
연령	20-24세	5.15c	3.74ab	4.49b	3.45a	5.50b	5.09c	4.02c	4.49ab	4.37	5.20b	4.71
	25-29세	5.31bc	4.00a	4.49ab	3.33ab	5.74ab	5.39abc	4.43abc	4.68a	4.25	5.62a	5.14
	30-34세	5.62ab	3.70ab	4.99a	3.00ab	6.00a	5.69a	4.58ab	4.66a	4.25	5.72a	5.08
	35-39세	5.77a	3.25c	5.10a	2.90b	5.99a	5.39abc	4.71a	4.30ab	.09	5.65a	5.20
	40-44세	5.73a	3.46bc	5.17a	3.16ab	5.76ab	5.27bc	4.49ab	4.20b	3.96	5.49ab	4.88
	45-49세	5.64ab	3.43bc	5.19a	3.10ab	5.83a	5.52ab	4.26bc	4.30ab	4.14	5.44ab	4.92
	<i>F</i>	6.36**	3.56**	6.20**	2.41*	3.99**	3.48**	4.12**	1.87	1.41	2.99*	2.10
학력	고졸 이하	5.59a	3.39b	4.83b	3.15ab	5.71ab	5.45a	4.16bc	4.58a	4.02	5.19b	5.04
	대학생	5.11b	3.87a	4.65b	3.48a	5.51b	5.07b	4.06c	4.45a	4.33	5.27b	4.76
	대학졸	5.60a	3.59ab	4.97ab	3.10b	5.85a	5.42a	4.44b	4.41ab	4.17	5.60a	4.99
	대학원졸	5.70a	3.47b	5.26a	3.07b	5.97a	5.31ab	5.01a	4.09b	4.28	5.87a	4.97
사회계층	<i>F</i>	7.21**	2.98*	4.17**	2.41	4.59**	3.54*	9.84**	2.14	1.28	7.88**	1.10
	하	5.48	3.64	4.86	3.20	.59b	5.27	4.25	4.42	4.18	5.31b	4.96
	중	5.55	3.52	4.90	3.19	5.88a	5.33	4.42	4.49	4.16	5.48b	4.93
	상	5.45	3.66	5.01	3.19	5.81a	5.45	4.47	4.24	4.24	5.76a	4.97
결혼여부	<i>F</i>	.36	.65	.54	.00	5.18**	1.01	1.34	1.39	.15	5.78**	.05
	미혼	5.27	3.85	4.71	3.42	5.64	5.26	4.24	4.49	4.33	5.47	4.85
	기혼	5.73	3.34	5.10	2.97	5.87	5.41	4.49	4.34	4.05	5.47	5.04
거주지	<i>t</i>	-5.07**	4.66**	-3.79**	3.94**	-2.68**	-1.59	-2.23*	1.28	2.52*	-.01	-1.61
	서울	5.52	3.73	5.00	3.28	5.83	5.27	4.55	4.39	4.25	5.66	4.95
	강원도	5.48	3.47	4.83	3.11	5.69	5.39	4.22	4.44	4.13	5.31	4.95
	<i>t</i>	.39	2.27*	1.65	1.47	1.68	-1.31	3.03**	-.39	1.03	3.65**	.06

\* $p < .05$ , \*\* $p < .01$ ,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연령에 따른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를 살펴보면 단정한,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세련된 헤어스타일이  $p<.05$ 와  $p<.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귀여운, 성숙한, 어려보이는 헤어스타일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 보면 단정한 헤어스타일은 30대 후반 및 40대 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였으며, 20대 전반은 선호도가 낮았다. 화려한 헤어스타일 이미지는 20대 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품위 있는 헤어스타일은 30, 40대 여성이 선호하는 이미지였으며, 20대 전반은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독특한 헤어스타일은 20대 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은 30대와 40대 후반 여성이 선호하였다. 여성적인 헤어스타일은 30대 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였으며, 20대 전반은 낮게 나타났다. 전문직 같은 헤어스타일 이미지는 30대 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20대 전반은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세련된 헤어스타일 이미지는 20대 후반 및 30대 여성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학력에 따른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볼 때 단정한, 화려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세련된 헤어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졸 이하와 대학졸업, 대학원졸업의 여성은 단정한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고, 대학생은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화려한 헤어스타일 이미지는 대학생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고졸 이하와 대학원졸업은 낮게 나타났다. 품위 있는 헤어스타일은 대학원졸업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대학생과 고졸 이하는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은 대학졸업과 대학원졸업 여성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은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여성적인 헤어스타일은 고졸 이하와 대학졸업의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였으며, 대학생은 가장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문직 같은 헤어스타일 이미지는 대학원졸업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였고, 세련된 헤어스타일 이미지는 대학

졸업과 대학원졸업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다.

사회계층에 따라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는 자연스러운, 세련된 이미지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류층과 중류층이 하류층보다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세련된 헤어스타일은 상류층이 가장 선호하였다.

결혼여부에 따라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는 단정한,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자연스러운, 전문직 같은, 성숙한 이미지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미혼여성은 화려한, 독특한, 성숙한 헤어스타일의 이미지를 기혼여성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기혼 여성은 단정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전문직 같은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다.

거주지에 따라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는 화려한, 전문직 같은, 세련된 이미지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 화려한, 전문직 같은, 세련된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강원도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소영(2007)의 연구에서 서울, 경기지역 여대생은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를, 대전, 충남지역 여대생은 자연적이고 청순한 이미지를 추구하였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전체적으로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평균을 비교하면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고, 독특한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이는 김정순(2002), 윤소영(2007)의 연구에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 4)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 이미지 선호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 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 이미지 선호의 차이 (N=674)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 이미지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어려보이는	단정한	화려한	품위있는	독특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연령	20-24세		4.17b	4.79a	4.54	5.42b	4.92b	5.17b	4.12a	5.02b	3.49a	5.58b	5.24b
	25-29세		4.77a	4.83a	4.32	5.76ab	5.45a	5.25b	4.19a	4.99b	3.38a	5.83ab	5.49ab
	30-34세		4.77a	4.80a	4.20	5.80a	5.46a	5.61a	4.08a	5.34a	3.25ab	6.04a	5.75a
	35-39세		4.78a	4.26b	4.18	5.81a	5.30ab	5.74a	3.52b	5.43a	2.90b	6.10a	5.54ab
	40-44세		4.65a	4.18b	4.15	5.53ab	5.05ab	5.75a	3.88ab	5.44a	3.41a	5.85ab	5.43ab
	45-49세		4.38ab	4.41ab	4.28	5.59ab	5.00b	5.48ab	3.88ab	5.47a	3.36a	5.97a	5.34b
학력	<i>F</i>		4.62**	5.08**	1.65	2.33*	3.11**	6.49**	3.46**	4.38**	2.47*	3.73**	2.31*
	고졸 이하		4.23c	4.58a	4.11b	5.31c	5.11	5.61a	3.83b	5.10b	3.29	5.91a	5.49
	대학생		4.21c	4.78a	4.59a	5.52bc	4.99	5.13b	4.21a	5.14b	3.43	5.57a	5.29
	대학졸		4.67b	4.53a	4.28ab	5.72ab	5.29	5.57a	3.95ab	5.33ab	3.35	5.90a	5.46
	대학원졸		5.17a	4.10b	4.24b	5.92a	5.01	5.53a	3.66b	5.49a	3.07	6.08a	5.43
사회계층	<i>F</i>		12.78**	4.28**	3.11*	6.33**	1.88	6.18**	3.49*	3.11*	1.18	4.42**	.85
	하		4.44b	4.50	4.29	5.42b	5.06	5.46	3.98	5.09b	3.36	5.65b	5.31b
	중		4.50ab	4.62	4.23	5.69a	5.19	5.44	3.86	5.28b	3.25	5.95a	5.45ab
	상		4.77a	4.44	4.50	5.80a	5.20	5.58	4.07	5.53a	3.38	6.02a	5.59a
결혼여부	<i>F</i>		2.54	.89	1.79	5.48**	.76	.72	1.12	6.62**	.46	6.75**	2.71
	미혼		4.45	4.75	4.44	5.63	5.10	5.28	4.15	5.13	3.46	5.73	5.37
	기혼		4.62	4.34	4.18	5.59	5.18	5.66	3.75	5.38	3.18	5.97	5.48
거주지	<i>t</i>		-1.59	3.79**	2.41*	.40	-.72	-4.45**	3.69**	-2.94**	2.41*	-2.78**	-1.24
	서울		4.68	4.53	4.36	5.82	5.24	5.50	4.02	5.42	3.35	5.96	5.47
	강원도		4.41	4.55	4.27	5.44	5.06	5.45	3.88	5.12	3.29	5.76	5.39
	<i>t</i>		2.55*	-.21	.84	4.15**	1.59	.63	1.34	3.34**	.56	2.31*	.82

\* $p < .05$ , \*\* $p < .01$ ,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연령에 따른 화장 이미지 선호를 살펴보면 단정한,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세련된, 어려보이는 이미지가  $p<.05$ 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별로 보면 단정한 화장 이미지는 30대 및 40대 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20대는 선호도가 낮았다. 화려한 화장 이미지는 20대 및 30대 전반 여성이 선호도가 높았고, 품위 있는 화장 이미지는 30, 40대 여성이 20대보다 더 선호하였다. 독특한 화장 이미지는 20대와 40대가 30대보다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자연스런 이미지는 30, 40대 여성이 20대 전반보다 더 선호하였다. 여성적인 화장 이미지는 30대 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였고, 전문직 같은 화장 이미지는 20대 전반 여성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귀여운 화장 이미지는 20대와 30대 전반 여성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세련된 화장 이미지는 30대가 가장 선호하였다. 어려보이는 화장 이미지는 20대 후반과 30대 전반 여성의 선호도가 높았다. 30, 40대 여성이 20대보다 품위 있는 화장 이미지를 선호하였던 것은 이연희(2006)의 연구에서 30, 40대 여성들이 클래식한 화장 이미지를 선호하였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었다.

학력에 따라 화장 이미지 선호는 단정한, 화려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화장 이미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단정한 화장 이미지는 고졸 이하와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여성의 선호도가 높았고, 화려한 화장 이미지는 대학생이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품위 있는 화장 이미지는 대학원졸업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였고, 고졸 이하, 대학생은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자연스러운 화장 이미지는 고졸 이하,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전문직 같은 화장 이미지는 대학원졸업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였다. 귀여운 화장 이미지는 대학생, 고졸 이하, 대학졸업 여성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대학원졸업은 선호도가 낮았다. 성숙한 화장 이미지는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였고, 고졸 이하와 대학원졸업의 여성은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세련된 화장 이미지는 대학원졸업 여성이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사회계층에 따라 화장 이미지 선호는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세련된 화장 이미지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품위 있는 화장 이미지는 상류층이 가장 선호하였고, 자연스러운 이미지와 세련된 화장 이미지는 상·중류층이 하류층보다 더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라 화장 이미지 선호는 단정한,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자연스러운, 귀여운, 성숙한 화장 이미지가  $p<.05$ 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화려한, 독특한, 귀여운, 성숙한 화장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으며, 단정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화장 이미지는 기혼여성이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전문직 같은, 세련된 화장 이미지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 강원도에 있는 여성보다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전문직 같은, 세련된 화장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비교하면 자연스러운 화장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고, 독특한 화장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이는 자연스러운 화장을 기본으로 하는 현재 유행경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 5)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의 차이 (N=674)

헤어스타일 선호		짧은 컷 스트레이트	단발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	짧은 컷 웨이브	단발 웨이브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태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
연령	20-24세	3.89a	4.06	3.90	4.57ab	4.16ab	4.41	4.67	5.11ab	4.74a	4.74a	4.91c
	25-29세	3.64a	3.98	4.15	4.51ab	4.05ab	4.37	4.75	5.35a	4.79a	4.77a	5.02bc
	30-34세	2.87b	3.85	4.07	4.70a	3.31c	4.31	4.70	5.42a	4.31ab	4.38ab	5.21abc
	35-39세	3.51a	3.88	4.03	4.18b	3.95ab	4.47	4.91	4.77bc	4.47ab	4.05bc	5.50a
	40-44세	3.94a	4.02	4.26	4.18b	3.82b	4.11	4.76	4.38c	4.33ab	3.76cd	5.32ab
	45-49세	3.91a	3.61	4.20	3.61c	4.39a	4.20	4.53	3.95d	4.02b	3.48d	5.23abc
	<i>F</i>	4.67**	1.10	1.20	6.64**	4.29**	1.06	.88	14.36**	3.46**	11.85**	3.44**
학력	고졸 이하	3.73	3.84	4.29ab	4.23	4.0	4.31	4.86	4.59bc	4.55ab	3.73c	5.33a
	대학생	3.93	4.09	3.89c	4.47	4.13	4.38	4.63	5.11a	4.79a	4.81a	4.91b
	대학졸	3.50	3.82	3.99bc	4.29	3.92	4.38	4.71	4.93ab	4.37b	4.20b	5.18ab
	대학원졸	3.92	4.16	4.37a	4.24	3.84	4.04	4.70	4.40c	4.18b	4.22b	5.39a
	<i>F</i>	2.59	1.66	3.60*	.78	.81	1.37	.77	5.74**	3.48*	10.66**	3.36*
사회계층	하	3.82	4.08	4.08	4.41a	4.00	4.27	4.65	4.73	4.68a	4.20	5.22
	중	3.61	3.77	4.13	4.33ab	3.95	4.37	4.85	4.95	4.40ab	4.22	5.07
	상	3.66	3.99	3.99	4.08b	4.02	4.32	4.59	4.74	4.27b	4.33	5.34
	<i>F</i>	.96	2.65	.45	2.14	.09	.33	2.37	1.64	3.40*	.31	1.10
결혼여부	미혼	3.68	3.99	4.05	4.55	4.04	4.34	4.71	5.12	4.66	4.69	5.08
	기혼	3.72	3.87	4.12	4.08	3.93	4.30	4.74	4.53	4.30	3.79	5.28
	<i>t</i>	-.25	.97	-.62	3.98**	.82	.32	-.24	5.04**	2.93**	7.16**	-1.99*
거주지	서울	3.94	4.15	4.11	4.28	4.14	4.38	4.70	4.80	4.51	4.36	5.22
	강원도	3.50	3.75	4.06	4.34	3.85	4.27	4.75	4.84	4.45	4.13	5.15
	<i>t</i>	3.24**	3.25**	.40	-.52	2.22*	.96	-.52	-.37	.48	1.74	.73

\* $p < .05$ , \*\* $p < .01$ , 문자 a, b, c, 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연령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의 차이는 짧은 컷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 짧은 컷 웨이브,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태,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가  $p<.05$ 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짧은 컷 스트레이트는 30대 전반의 선호도가 낮았고,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는 30대 전반 여성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40대 후반은 선호도가 낮았다. 짧은 컷 웨이브 헤어스타일은 40대 후반 여성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30대 전반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층이 있는 롱 웨이브는 20대 후반 및 30대 전반 여성이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이었다. 앞머리를 모두 내리거나 모두 올린 형태의 헤어스타일은 20대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40대 후반 여성의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다.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의 헤어스타일은 30대 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이었다. 여성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짧은 컷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김복숙, 1999; 강영숙, 2002; 이효숙, 2008)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쇼트 펌 헤어를 가장 선호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력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의 차이를 살펴보면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태,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는 대학원졸업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대학생은 선호도가 낮았다. 층이 있는 롱 웨이브 헤어스타일은 대학생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졸업의 여성은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머리를 모두 내리거나 모두 올린 형태의 헤어스타일은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이었으며, 고졸 이하는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태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의 헤어스타일은 고졸 이하와 대학 및 대학원졸업

여성이 대학생보다 더 선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김양휴, 1996; 서장일, 2005; 고성현, 2006; 오지영, 김영철, 2006)에서 층이 있는 긴 길이의 웨이브를 가장 선호하였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사회계층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의 차이는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하류층이 상류층보다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더 선호하였다.

결혼여부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의 차이는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태,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앞머리를 모두 내리거나 모두 올린 형태의 헤어스타일은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는 기혼여성이 더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이었다. 이는 곽형심 외(2001)의 연구에서 미혼은 층이 있는 긴 머리를 가장 선호하고 기혼은 짧은 커트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짧은 컷 스트레이트, 단발 스트레이트, 짧은 컷 웨이브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짧은 컷 스트레이트, 단발 스트레이트, 짧은 컷 웨이브는 강원도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 더 선호하는 헤어스타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동금(2003), 김병미, 유미근(2004)의 연구에서 서울과 수도권 여성의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헤어길이에 있어 짧고 활동성 있는 단발형을 선호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여성들은 층이 있는 긴 머리를 선호하였고, 면의 여성은 커트머리를 가장 선호하였다는 곽형심 외(2001)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비교하면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 순으로 20대 후반 및 30대 전반 여성은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스타일을 선호하였고, 30대 후반 및 40대는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를 선호하였다. 짧은 컷 스트레이트는 가장 선호되지 않았다.

### 5) 인구통계적 변인과 색조화장수준의 관계

인구통계적 변인과 색조화장수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6>과 같다.

연령과 색조화장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20대 전반 여성은 색조화장을 ‘드물게 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30대 후반은 ‘보통으로 한다’, 40대는 색조화장을 ‘거의 항상 한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여성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얼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거나 변화를 감추기 위하여 색조화장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선행연구(전연숙, 2000; 전용수, 2001) 결과에서 색조화장 빈도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던 것과 일치하였다.

학력과 색조화장수준과의 관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대학생과 고졸 이하의 여성은 색조화장을 ‘드물게 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대학졸업과 대학원졸업 여성은 색조화장을 ‘거의 항상 한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사회계층과 색조화장수준과의 관계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하류층은 색조화장을 ‘보통 수준으로 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중류층은 ‘드물게 한다’, 상류층은 색조화장을 ‘거의 항상 한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와 색조화장수준과의 관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미혼 여성은 색조화장을 ‘드물게 한다’가 가장 많았고, 기혼여성은 ‘거의 항상 한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여성들은 색조

화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와 색조화장수준과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6> 인구통계적 변인과 색조화장수준의 관계 ( )=row%

인구통계적변인		색조화장수준					
		안함	드물게	보통	자주	거의 항상	전체
연령	20-24세	20(10.8)	53(28.6)	34(18.4)	38(20.5)	40(21.6)	185(100)
	25-29세	8(9.5)	20(23.8)	27(32.1)	18(21.4)	11(13.1)	84(100)
	30-34세	6(8.5)	20(28.2)	19(26.8)	7(9.9)	19(26.8)	71(100)
	35-39세	12(10.4)	31(27.0)	35(30.4)	8(7.0)	29(25.2)	115(100)
	40-44세	11(8.4)	33(25.2)	35(26.7)	7(5.3)	45(34.4)	131(100)
	45-49세	14(15.9)	17(19.3)	21(23.9)	4(4.5)	32(36.4)	88(100)
		$\chi^2=54.77^{**}$			$df=20$		
학력	고졸 이하	20(13.3)	42(28.0)	41(27.3)	11(7.3)	36(24.0)	150(100)
	대학생	19(12.7)	43(28.7)	28(18.7)	34(22.7)	26(17.3)	150(100)
	대학졸	24(8.5)	74(26.1)	76(26.8)	33(11.6)	77(27.1)	284(100)
	대학원졸	8(8.9)	15(16.7)	26(28.9)	4(4.4)	37(41.1)	90(100)
		$\chi^2=43.88^{**}$			$df=12$		
사회계층	하	35(13.9)	55(21.9)	67(26.7)	29(11.6)	65(25.9)	251(100)
	중	21(7.3)	86(29.9)	69(24.0)	44(15.3)	68(23.6)	288(100)
	상	15(11.1)	33(24.4)	35(25.9)	9(6.7)	43(31.9)	135(100)
		$\chi^2=17.63^*$			$df=8$		
결혼여부	미혼	32(9.7)	85(25.7)	75(22.7)	62(18.7)	77(23.3)	331(100)
	기혼	39(11.4)	89(25.9)	96(28.0)	20(5.8)	99(28.9)	343(100)
		$\chi^2=27.42^{**}$			$df=4$		
거주지	서울지역	32(10.4)	69(22.3)	83(26.9)	45(14.6)	80(25.9)	309(100)
	기타지역	39(10.7)	105(28.8)	88(24.1)	37(10.1)	96(26.3)	365(100)
		$\chi^2=5.91$			$df=4$		
전체		71(10.5)	174(25.8)	171(25.4)	82(12.2)	176(26.1)	674(100)

\* $p < .05$  \*\* $p < .01$

## 6) 인구통계적 변인과 화장시간의 관계

인구통계적 변인과 화장시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인구통계적 변인과 화장시간의 관계 ( )=row%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시간				
		10분미만	10~20분미만	20~30분미만	30분 이상	전체
연령	20-24세	36(19.5)	53(28.6)	62(33.5)	34(18.4)	185(100)
	25-29세	11(13.1)	41(48.8)	23(27.4)	9(10.7)	84(100)
	30-34세	16(22.5)	24(33.8)	22(31.0)	9(12.7)	71(100)
	35-39세	47(40.9)	48(41.7)	14(12.2)	6(5.2)	115(100)
	40-44세	57(43.5)	56(42.7)	16(12.2)	2(1.5)	131(100)
	45-49세	42(47.7)	30(34.1)	16(18.2)	0(0)	88(100)
			$\chi^2=108.17^{**}$ $df=15$			
학력	고졸 이하	62(41.3)	58(38.7)	21(14.0)	9(6.0)	150(100)
	대학생	25(16.7)	43(28.7)	53(35.3)	29(19.3)	150(100)
	대학졸	93(32.7)	110(38.7)	62(21.8)	19(6.7)	284(100)
	대학원졸	29(32.2)	41(45.6)	17(18.9)	3(3.3)	90(100)
			$\chi^2=60.95^{**}$ $df=9$			
사회계층	하	79(31.5)	85(33.9)	55(21.9)	32(12.7)	251(100)
	중	91(31.6)	113(39.2)	68(23.6)	16(5.6)	288(100)
	상	39(28.9)	54(40.0)	30(22.2)	12(8.9)	135(100)
			$\chi^2=9.57$ $df=6$			
결혼여부	미혼	57(17.2)	120(36.3)	103(31.1)	51(15.4)	331(100)
	기혼	152(44.3)	132(38.5)	50(14.6)	9(2.6)	343(100)
			$\chi^2=91.33^{**}$ $df=3$			
거주지	서울지역	90(29.1)	115(37.2)	75(24.3)	29(9.4)	309(100)
	기타지역	119(32.6)	137(37.5)	78(21.4)	31(8.5)	365(100)
			$\chi^2=1.43$ $df=3$			
전체		209(31.0)	252(37.4)	153(22.7)	60(8.9)	674(100)

\*\* $p < .01$

연령과 화장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20대 전반 여성은 화장시간이 20-30분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후반 및 30대는 10-20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40대 여성은 10분 미만의 화장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에는 화장하는 기술이 미숙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게 되면서 화장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이 익숙하게 되고 방법도 단순화되면서 화장에 사용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력과 화장시간과의 관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대학생의 화장시간은 20-30분미만이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는 10분미만, 대학졸업과 대학원졸업은 10-20분미만의 화장시간이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결혼여부와 화장시간과의 관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미혼 여성은 10-20분미만의 화장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기혼여성 은 10분미만의 시간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김효정(1999)의 연구에서 미혼 여성이 기혼보다 화장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었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사회계층, 거주지와 화장시간과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 5. 헤어스타일 행동과 화장동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여성의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 연령, 사회계층, 학력, 거주지가 헤어스타일 행동과 화장동기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방법에 의해 각 변인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8~31>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R^2$ 이 0.1 이상인 경우의 변인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 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5>와 같다. 거주지는 서울은 0점, 강원도는 1점을 주어 가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28>은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 연령, 사회계층, 학력, 거주지가 헤어스타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28> 헤어스타일 행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67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sup>2</sup>
동조성	지배우월	.399	.297	8.049**	R <sup>2</sup> =.143 F=22.276**
	거주지	.122	.082	2.241*	
	경제·사회적 만족	.254	.219	4.412**	
	행복감	-.177	-.160	-3.354**	
	사회계층	-.046	-.082	-2.148*	
대인지향	사교우호	.270	.218	5.390**	R <sup>2</sup> =.098 F=24.336**
	과시도취	.156	.132	3.224**	
	연령	.008	.108	2.860**	
유행	사교우호	.327	.222	5.623**	R <sup>2</sup> =.139 F=27.051**
	지배우월	.162	.115	2.478*	
	거주지	.205	.131	3.655**	
	과시도취	.172	.122	2.428*	
개성	과시도취	.335	.299	7.815**	R <sup>2</sup> =.116 F= 29.173**
	신체적 만족	.092	.102	2.706**	
	연령	.005	.079	2.150*	

\*p<.05, \*\*p<.01, 거주지: 가변수(0=서울, 1=강원도)

동조성에는 지배우월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이 경제·사회적 만족, 행복감, 거주지, 사회계층 순이었으며(beta=.297, .219, -.160, .082, .082), 5개 변인의 설명력은 14.3%였다. 즉 지배우월적 성향이 높고 경제·사회적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행복감은 낮게 지각할수록 헤어스타일 행동에 있어서 동조성이 높았고, 사회계층은 상류층일수록, 거주지가 강원도인 여성이 서울의 여성보다 동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조성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과

<표 29~30>을 볼 때 연령은 지배우월 성향을 통하여 동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학력은 지배우월 성향을 통하여 동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회계층은 경제·사회적 만족을 통하여 동조성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행복감을 통하여 동조성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표 29>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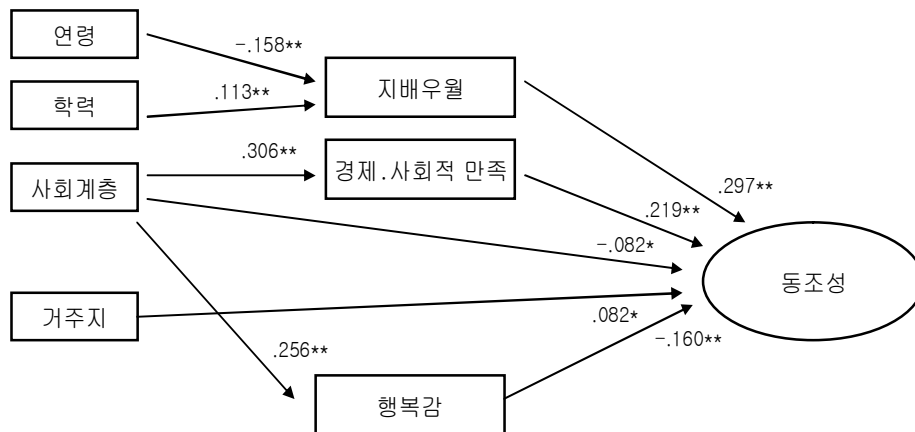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sup>2</sup>
지배우월	연령	-.009	-.158	-4.134**	R <sup>2</sup> =.043
	학력	.099	.113	2.958**	F=15.088**
동정수용	연령	.005	.092	2.391*	R <sup>2</sup> =.008 F=5.715*
사교우호	연령	.005	.081	2.095*	R <sup>2</sup> =.006 F=4.389*
과시도취	연령	-.010	-.167	-4.398**	R <sup>2</sup> =.043
	사회계층	.056	.135	3.566**	F=14.943**

\*p<.05, \*\*p<.01

<표 30> 생활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67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sup>2</sup>
경제·사회적 만족	사회계층	.148	.306	8.335**	R <sup>2</sup> =.094 F=69.469**
행복감	사회계층	.130	.256	6.854**	R <sup>2</sup> =.065 F=46.975**
신체적만족	사회계층	.077	.148	3.886**	R <sup>2</sup> =.022 F=15.100**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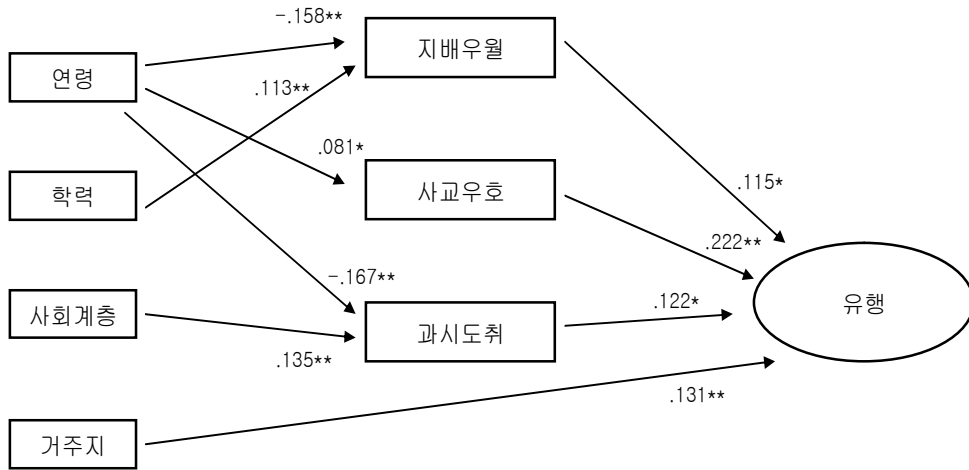
\* $p < .05$ , \*\* $p < .01$

<그림 1> 동조성 추구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대인지향에는 사교우호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이 과시도취, 연령의 순이었다(beta=.218, .132, .108). 3개 변인의 설명력은 9.8%였다. 즉 연령이 높고 사교우호, 과시도취적 성향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 행동에 있어서 대인지향 행동이 더 높았다. 연령은 사교우호 성향을 통하여 대인지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과시도취 성향을 통해서 대인지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회계층은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대인지향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유행에는 사교우호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이 거주지, 과시도취, 지배우월의 순이었으며(beta=.222, .131, .122, .115), 4개 변인의 설명력은 13.9%였다. 즉 대인관계에서 사교우호, 과시도취, 지배우월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서울보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여성이 헤어스타일 행동에서 유행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연령은 지배우월,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유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사교우호 성향을 통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력은 지배우월 성향을 통하여 유행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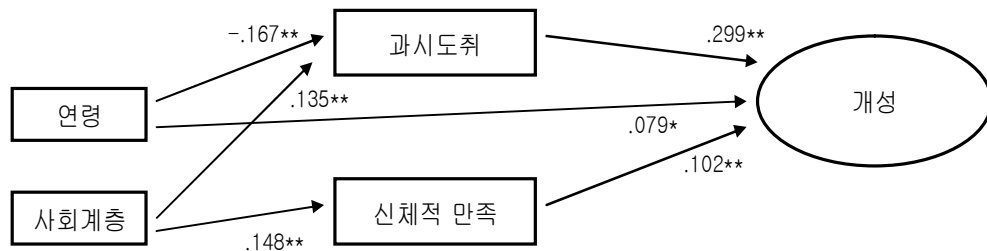
주었으며, 사회계층은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유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p < .05$ , \*\* $p < .01$

<그림 2> 유행 추구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개성에는 과시도취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이 신체적 만족, 연령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beta=.299, .102, .079), 3개 변인의 설명력은 11.6%였다. 즉 연령이 높고 과시도취적 성향이 높을수록, 신체적 만족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헤어스타일 행동에서 개성을 더 추구하였다. 개성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연령은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사회계층은 과시도취 성향과 신체적 만족을 통하여 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p<.05, \*\*p<.01

<그림 3> 개성 추구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화장동기에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 연령, 사회계층, 학력, 거주지가 동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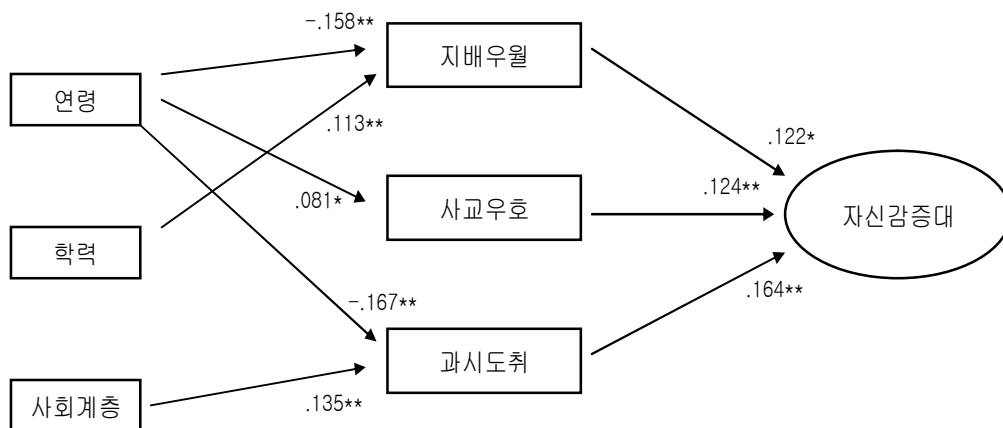
<표 31> 화장동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67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sup>2</sup>
자신감증대	과시도취	.205	.164	3.203**	R <sup>2</sup> =.102 F=25.439**
	사교우호	.162	.124	3.071**	
	지배우월	.152	.122	2.584*	
예의성	연령	.016	.199	5.254**	R <sup>2</sup> =.088 F=16.220**
	과시도취	.178	.130	3.178**	
	사교우호	.167	.118	2.890**	
변화의 즐거움	거주지	.147	.097	2.636**	R <sup>2</sup> =.101 F=37.673**
	사교우호	.250	.218	5.480**	
	과시도취	.176	.160	4.027**	

\*p<.05, \*\*p<.01 거주지: 가변수(0=서울, 1=강원도)

자신감증대에는 과시도취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사교우호, 지배우월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beta=.164, .124, .122). 3개 변인의 설명력은 10.2% 였다. 즉 대인관계에서 과시도취, 사교우호, 지배우월적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감증대를 위하여 화장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증대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연령은 지배우월,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자신감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사교우호 성향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력은 지배우월 성향을 통하여 자신감증대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사회계층은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자신감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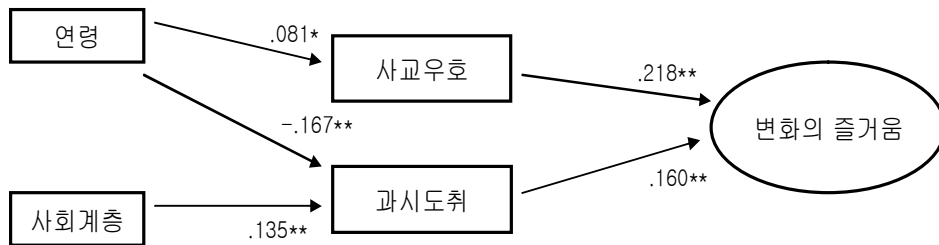


\* $p < .05$ , \*\* $p < .01$

<그림 4> 자신감증대의 화장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예의성에는 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이 과시도취, 사교우호, 거주지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beta=.199, .130, .118, .097), 4개 변인의 설명력은 8.8%였다. 즉 연령이 높고 과시도취, 사교우호적 성향이 높을수록, 강원도에 거주하는 여성이 서울의 여성보다 화장동기에 있어서 예의성을 더 중요시하였다. 연령은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예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사교우호 성향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회계층은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예의성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변화의 즐거움은 사교우호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 과시도취 성향이 영향을 주었으며(beta=.218, .160), 2개 변인의 설명력은 10.1%였다. 즉 사교우호와 과시도취적 대인관계성향이 높을수록 변화의 즐거움을 위하여 화장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의 즐거움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연령은 사교우호 성향을 통하여 변화의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과시도취 성향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회계층은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변화의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p<.05, \*\*p<.01

<그림 5> 변화의 즐거움의 화장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 V. 결론

###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40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와 미용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미용행동의 차이를 조사하며, 인구통계적 변인,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가 헤어스타일 행동과 화장동기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피험자는 서울과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20대~40대 여성 6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1) 대인관계성향과 미용행동의 관계

첫째, 대인관계에서 지배우월, 동정수용, 사교우호, 과시도취 성향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행동의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을 모두 중요시 하였고, 화장을 하는 동기에 있어서도 자신감증대, 예의성, 변화의 즐거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배우월과 과시도취 성향이 높을수록 단정한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선호도는 낮았으나,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전문직 같은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선호하는 정도가 높았다. 동정수용의 성향이 높을수록 단정한, 어려보이는,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았고, 사교우호 성향이 높을수록 단정한, 화려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어려보이는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았다.

셋째, 지배우월 성향이 높을수록 단정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화장 이

미지의 선호도는 낮았고, 화려한, 독특한,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성숙한 화장 이미지를 선호하는 정도는 높았다. 동정수용 성향이 높을수록 단정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성숙한, 세련된 화장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았다. 또 사교우호, 과시도취 성향이 높을수록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전문직 같은, 세련된 화장 이미지를 선호하는 정도가 높았다.

넷째, 대인관계에서 지배우월 성향이 높을수록 짧은 컷 스트레이트,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태, 짧은 컷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선호하였고, 동정수용, 사교우호 성향이 높을수록 짧은 컷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중간·롱 스트레이트, 짧은 컷 웨이브,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선호하였다. 과시도취 성향이 높을수록 짧은 컷 스트레이트, 짧은 컷 웨이브,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선호하였다.

다섯째, 지배우월, 동정수용, 사교우호, 과시도취의 대인관계성향이 모두 높을수록 색조화장을 많이 하였으며, 지배우월과 과시도취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화장시간이 더 길었다.

## 2) 생활만족도와 미용행동의 관계

첫째, 경제·사회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헤어스타일행동에서 동조성과 개성을 중요시하였고, 행복감이 높을수록 대인지향과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신체적 만족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행동에서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을 모두 중요시 하였다. 또 경제·사회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화장을 할 때 자신감증대, 예의성, 변화의 즐거움에 대한 동기가 높았고, 행복감, 신체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감증대, 변화의 즐거움에 대한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사회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단정한, 품위 있는, 독특한, 전문

직 같은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았고, 행복감이 높을수록 단정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성숙한, 세련된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신체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화려한, 독특한, 전문직 같은, 세련된, 귀여운, 성숙한, 어려보이는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셋째, 경제·사회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단정한, 품위 있는, 전문직 같은,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성숙한 화장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았고, 행복감이 높을수록 단정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성숙한, 세련된 화장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신체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화려한, 독특한, 귀여운, 성숙한, 세련된, 품위 있는, 여성적인, 어려보이는 화장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았다.

넷째, 경제·사회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짧은 컷 웨이브의 헤어스타일을 선호하였으며,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의 헤어스타일은 선호도가 낮았다. 행복감이 높을수록 짧은 컷 웨이브,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의 헤어스타일 선호도가 높았다.

다섯째, 경제·사회적 만족 및 행복감과 화장시간은 부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경제·사회적 만족과 행복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화장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미용행동의 차이

첫째, 헤어스타일행동 중 대인지향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40대 후반 여성은 20, 30대보다 대인지향이 더 높았다. 즉 연령이 많은 여성은 헤어스타일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지역별로 볼 때 강원도 지역 여성이 서울 지역 여성보다 헤어스타일행동 중 동조성과 유행을 더 중요시 하였다. 전체적인 평균을 비교할 때

여성들은 헤어스타일을 정할 때 대인지향의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둘째, 화장동기 중 예의성은 40대가 가장 높았고 20대 전반이 가장 낮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고졸 이하는 예의성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생은 예의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기혼여성은 미혼여성보다 예의성을 중요시하였고, 강원도 지역 여성이 서울 지역보다 더 예의성을 중요시하였다. 전체적으로 화장동기의 평균을 비교하면 변화의 즐거움 동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예의성, 자신감증대의 순이었다.

셋째,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 중 단정한 이미지와 품위 있는 이미지는 30, 40대가 20대보다 더 선호하였다. 독특한 이미지는 20대 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으며, 여성적인 이미지는 20대 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전문직 같은 이미지는 30대 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세련된 이미지는 20대 전반 여성이 비교적 선호도가 낮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단정한 헤어스타일 이미지는 대학생이 가장 선호도가 낮았으나, 화려한 이미지는 대학생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는 대학원졸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는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여성적인 이미지는 대학생이 가장 선호도가 낮았으며, 전문직 같은 이미지는 대학원졸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대학생은 선호도가 낮았다. 세련된 이미지는 대졸 이상의 여성이 고졸보다 더 선호하였다. 계층에 따른 차이에서 상류와 중류층은 하류층보다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세련된 이미지는 상류층이 가장 선호하였다. 미혼여성은 화려한, 독특한, 성숙한 이미지를 기혼여성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기혼 여성은 단정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전문직 같은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다. 서울 지역 여성은 화려한, 전문직 같은, 세련된 이미지를 강원도 지역 여성보다 더 선호하였다. 전체적으로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평균을 비교하면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

였고, 독특한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넷째, 화장 이미지 선호 중 단정한 이미지는 20대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고, 화려한 이미지는 20대 및 30대 전반이 30대 후반 및 40대 연령층보다 더 선호하였다. 품위 있는 이미지는 30, 40대 여성이 20대보다 더 선호하였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는 20대 전반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전문직 같은 이미지와 세련된 이미지는 20대 전반이 가장 낮았다. 귀여운 이미지는 20대 및 30대 전반이 30대 후반 및 40대보다 선호도가 더 높았다. 어려보이는 이미지는 20대 후반 및 30대 전반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학력별로 볼 때 화려한 이미지는 대학생의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품위 있는 이미지, 전문직 같은 이미지, 세련된 화장 이미지는 대학원졸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다. 또 품위 있는 화장 이미지는 상류층이 가장 선호하였고, 자연스러운 이미지 및 세련된 이미지는 상류와 중류층이 하류층보다 더 선호하였다. 미혼 여성은 기혼 여성보다 화려한, 독특한, 귀여운, 성숙한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으며, 단정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이미지는 기혼 여성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여성은 강원도 지역 여성보다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전문직 같은, 세련된 화장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비교하면 자연스러운 화장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고, 독특한 화장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다섯째, 헤어스타일 선호를 연령별로 비교할 때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는 30대 전반 여성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짧은 컷 웨이브 헤어스타일은 40대 후반 여성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층이 있는 롱 웨이브는 20대 후반과 30대 전반이 30대 후반 및 40대보다 더 선호하였다.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과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의 헤어스타일은 20대가 30, 40대보다 더 선호하였다. 학력별로 볼 때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 헤어는 대학원졸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대학생은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층이 있는 롱 웨이브 헤어스타일,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 앞머리

를 모두 올린 형은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였다. 하류층은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의 헤어스타일을 중류나 상류층보다 더 선호하였다. 미혼여성은 기혼여성보다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의 헤어스타일을 더 선호하였고,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는 기혼여성이 더 선호하였다. 서울 지역 여성은 강원도 지역 여성보다 짧은 컷 스트레이트, 단발 스트레이트, 짧은 컷 웨이브를 더 선호하였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비교하면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 순으로 20대 후반 및 30대 전반 여성은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스타일을 선호하였고, 30대 후반 및 40대는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를 선호하였다. 짧은 컷 스트레이트는 가장 선호되지 않았다.

여섯째,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색조화장을 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중류층은 색조화장을 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고, 상류층은 색조화장을 하는 정도가 높았다. 기혼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색조화장을 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30대 후반 및 40대는 30대 전반 및 20대보다 화장시간이 더 짧았으며,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이 보다 화장시간이 더 짧았다. 대학생의 화장시간은 20-30분미만이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는 10분미만, 대졸 이상은 10-20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 4) 헤어스타일행동과 화장동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 관계

첫째, 헤어스타일의 동조성을 추구행동에는 지배우월, 경제·사회적 만족, 행복감(-), 사회계층(-), 거주지가 동시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 $R^2=.143$ ). 연령은 지배우월 성향을 통하여 동조성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학력은 지배우월 성향을 통하여 동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회계층은 경제·사회적 만족을 통하여 동조성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행복감을 통하여 동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헤어스타일의 대인지향 행동에는 사교우호, 과시도취,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R^2=.098$ ). 연령은 사교우호 성향을 통하여 대인지향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회계층은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대인지향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헤어스타일의 유행 추구행동에는 사교우호, 과시도취, 지배우월, 거주지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R^2=.139$ ). 연령은 지배우월,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유행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사교우호 성향을 통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력은 지배우월 성향을 통하여 유행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계층은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헤어스타일의 개성 추구행동에는 과시도취, 신체적 만족,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R^2=.116$ ). 연령은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개성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사회계층은 과시도취 성향과 신체적 만족을 통하여 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화장동기 중 자신감증대에는 과시도취, 사교우호, 지배우월 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R^2=.102$ ). 연령은 지배우월,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자신감증대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사교우호 성향을 통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력은 지배우월 성향을 통하여 자신감증대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사회계층은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자신감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예의성의 화장동기에는 연령, 과시도취, 사교우호, 거주지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R^2=.088$ ). 연령은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예의성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사교우호 성향을 통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회계층은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예의성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변화의 즐거움을 위한 화장동기에는 사교우호, 과시도취 성향이 유의한 영향

을 주었다( $R^2=.101$ ). 연령은 사교우호 성향을 통하여 변화의 즐거움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과시도취 성향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회계층은 과시도취 성향을 통하여 변화의 즐거움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배우월, 과시도취, 사교우호 등의 대인관계성향은 헤어스타일행동 및 화장동기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지배우월의 성향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의 동조성과 유행을 동시에 중요시하면서 다양한 화장동기가 높았다. 또한 경제·사회적 만족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의 동조성을 추구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행복감이 높은 여성은 여성적인 미용이미지를 선호하였고, 신체적 만족이 높은 여성은 화려한 미용이미지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는 현대여성의 미용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행위의 효용성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여성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전반에 있어 이미지 개선과 긍정적인 인상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서울과 강원도 지역으로 한정되었고,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임의 추출을 하였으므로 전체 여성에게 확대하여 일반화 하는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변인중 사회계층을 주관적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계층적 위치를 규정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미용행동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경화 (2000). *현대 메이크업 총론*. 서울: Artistic Publishing Company. p.195.
- 강동훈, 오세이 (2009).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5(2), pp.429-439.
- 강상현 (1999). 다이어트 심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3.
- 강영숙 (2002).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변화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8(2), pp.189-199.
- 강영숙, 박현정 (2009). 뷰티살롱 고객의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영향관계. *한국미용학회지*, 15(1), pp.363-373.
-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166.
- 고성현 (2006). 여성의 헤어스타일 선호와 성격유형의 상관성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7(3), pp.225-234.
- 고혜숙 (2007). 여성의 입술컬러와 앞머리 스타일이 인상형성과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p.102.
- 곽형심, 남철현, 이규수, 이순자, 최연희, 전연숙 (2001). 여성의 모발미용에 대한 의식행태 조사연구. *보건복지연구* 6, 경산대학교, pp.1-31.
- 구현진 (2008).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련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pp.7-8.
- 권현숙 (2000). *여성의 화장이 심리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p.37.

- 김기범, 차영란 (2006). 여성의 화장을 통한 미와 자기개념의 사회문화적 의미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0), pp.107-123.
- 김기정, 이정희 (1999). 대학생들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집단 상담의 효과연구.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7, pp.17-37.
- 김명리, 김주덕 (2005). 화장행위가 갖는 심리학적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화장품학회지*, 13(1), pp.127-134.
- 김문수 (2004).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실험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4.
- 김미정, 박숙현 (2009). 상황에 따른 남성헤어스타일 선호도 성별 비교.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1), pp.156-165.
- 김병미, 유미근 (2004). 대학생의 헤어패션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디자인학회지*, 6(1), pp.1-12.
- 김보경 (2007). 자가 미용교육 프로그램이 여성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p.39.
- 김보라 (2010). 미용재활교육프로그램이 여성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기의식,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p.67.
- 김복숙 (1999). 여성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pp. 119-200.
- 김선희 (200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pp.99-108.
- 김순구 (1995). 자아존중도와 생활만족도가 의복행동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령 및 성을 중심으로. *복식*, 26, pp.49-67.
- 김양휴 (1996). 패션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pp.25-26, 40.

- 김영란 (2010). *미용심리치료를 위한 자가 미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p.116.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삼황, 박은영(2002).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 검사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21(2), pp.391-411.
- 김원배 (2010).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p.10.
- 김유선, 박옥련 (2009). 자기에 성향에 따른 집단별 외모 관심도 및 미용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5), pp.808-817.
- 김인선 (2006). *성격유형과 감각 추구성향, 헤어스타일 행동이 미용실 선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pp.33-35.
- 김재숙, 이해숙 (1989). 노인의 의복행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 2, pp.1-15.
- 김재은 (1974). *한국가족의 집단성격과 부모: 자녀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p.202-237.
- 김재인 (1986). 후기 성인의 사회 교육적 학습참여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탐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p.50, 52.
- 김정순 (2002). *여대생들의 Hair Style 행동에 대한 선호이미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p.68.
- 김진구, 서미아, 이유경, 이선희 (1996).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외모 만족도에 따른 의복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1), pp.57-74.
- 김진아 (2011). *미용전공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과 만족도에 따른 헤어스타일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pp.92-93.
- 김창대, 김수임(2001). 대인관계 능력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35(1), pp.83-95.
- 김판규 (2003). 초등학생의 자기 신체평가와 대인관계성향의 관계. *한국스*

- 포츠리서치, 14(6), pp.947-956.
- 김학년 (2006). *성격유형과 통제위치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p.45.
- 김현경 (1985).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9.
- 김혜란 (2007). *중년여성의 신체적 특성이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두피모발미용학회지*, 3(2), pp.175-197.
- 김혜란, 임은진 (2007).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이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3(3), pp.1078-1085.
- 김혜정 (2009). *미용치료 프로그램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증상 완화 및 사회적응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p.113.
- 김효정 (1999). *20대 여성들의 Make up 선호도 및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5(1), pp.198-205.
- 김효정, 임은진 (2009). *20·30대 남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4), pp.633-640.
- 나광주 (1989).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p.20.
- 문선모 (1980). *인간관계 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 19, (80, 4), pp.195-204.
- 문혜경 (2002). *심리적 특성화 의복태도 및 화장도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p.69.
- 박미경 (2005). *여대생의 화장행위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p.103.
- 박미애 (1987). *노년여성의 신체적 자아 및 생활만족도와 의복태도와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36.
- 박미애 (2009). *개인 이미지에 따른 연예인 헤어스타일의 선호도*. 석사학

- 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pp.73-74.
- 박선민 (2007). 직장 여성의 헤어스타일 선호도와 성격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 분석. *한국미용예술학회지*, 1(3), pp.143-149.
- 박수진 (2006). 남성의 패션, 헤어스타일, 피부, 신체이미지에 관한 유형 분석.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p.6-9.
- 박숙현, 류은혜, 이순덕 (2006). 한국과 호주여성의 헤어스타일행동 및 선호도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pp.129-139.
- 박은미 (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41-42, p.44.
- 박은아 (2003). 화장의 심리사회적 의미: '보여주기'의 미학.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4(2), pp.105-127.
- 박주비 (2004).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 및 신체 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pp.50-52.
- 박진숙 (2004). 헤어스타일 선호도 결정요인 분석: 인구학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pp.36-37.
- 배주윤 (2003). 화장행위의 만족도와 대인관계성향의 관련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향장산업대학원, p.56.
- 배행숙 (2007). 남성 얼굴 형태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pp.66-67.
- 백경진, 김미영(2004). 화장행동과 영향변인 연구: 의복관여도, 연령, 얼굴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pp.892-903.
- 서경희(1995). 경험적 접근에 의한 대인관계의 지향성 척도 개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p.35.
- 서운경 (2003). 여대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와의

-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p.71.
- 서장일 (2005). *의상이미지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조사 연구: 대구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 대학원, pp.67-68.
- 성미영 (2007). *외모만족도 증진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p.44-45.
- 손지연 (2011). *얼굴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지각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p.90.
- 송은영 (2005). *직장여성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메이크업의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pp.87-90.
- 신동금 (2003). *거주지별 헤어스타일 선호차이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9(2), pp.110-121.
- 신호정 (2002). *현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p.14.
- 안범희 (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p.8, 13-15.
- 안범희 (2010). *대인관계론*. 서울: 태영출판사, pp.108-116, 121, 132-133.
- 양계민 (1993).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p.13.
- 양숙희 (2002).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행태와 관련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p.40.
- 양숙희, 최연희 (2003).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과 관련 요인조사*. *김천과학대학 논문집*, 29, pp.169-189.
- 염영옥 (1999). *폭력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REBT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p.12-14.
- 오지영, 김영철 (2006). *대학생의 성격 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과 의복이*

- 미지 선호 연구. *복식문화연구*, 14(4), pp.635-646.
- 오현숙 (2003). 노인의 특성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p.18.
- 유경숙 (1984).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p.8, 43.
-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pp.23, 58-59.
- 윤소영 (2007).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p.69.
- 윤진 (1982).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제작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 초록, *한국심리학회지*, pp.26-300.
- 이경희 (2011). 대학생의 우울, 자기 효능감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p.76.
- 이명희 (2004). 지각자의 사회적 가치와 헤어스타일 변화에 따른 이미지 지각연구. *복식문화연구*, 12(6), pp.971-983.
- 이명희 (2007). 여성 헤어스타일에 대한 남성 지각자의 이미지 평가 및 선호도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2), pp.127-138.
- 이명희 (2009). 청소년의 외모관심, 외모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9(8), pp.97-109.
- 이명희, 이미연 (2004). 여성 외모의 대인매력평가연구. *복식*, 54(6), pp.101-114.
- 이수경, 고애란 (2006). 외모향상추구 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1), pp.59-70.
- 이승신, 김시월 (1996). 한국 여성의 미의 가치관을 통해 본 소비행태 분석: 화장품을 중심으로. 태평양장학재단 논문집, pp.1-66.
- 이연희 (2005). 메이크업 색채 활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화장색 이미지 지각 및 선호도 연구. *복식문화연구*, 13(5), pp.712-728.

- 이연희 (2006). 화장색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 차이(제2보): 지각자의 연령과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5), pp.684-698.
- 이연희, 양취경 (200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부분 색채화장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3/4), pp.515-526.
- 이영미, 서미아 (1998). 네크라인과 헤어스타일이 얼굴이미지 및 형태 지각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6(4), pp.13-25.
- 이원진 (2003). 노인 여성의 화장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pp.30-31.
- 이인자, 신호정 (2001). 의복에 따른 외모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예술 논집*, 24, pp.203-220.
- 이종길 (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116.
- 이해림 (2010).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용교육 및 시술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비만미용향장대학원, p.27.
- 이현옥, 구양숙 (2006). 여성의 외모관리 행동의 동기연구: 성형수술, 비만체형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pp.113-122.
- 이현정, 김미영 (2006). 의복추구 이미지 집단에 따른 화장추구 이미지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30(4), pp.655-661.
- 이혜성 (1982). *성장심리학*.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151-157.
- 이혜숙 (1987).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p.35-36.
- 이혜원 (2006). 의복관여와 헤어태도 및 헤어관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pp.71-75.
- 이화순 (1997). 노인의 화장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한국미용학회지*, 3(1), pp.165-183.
- 이화순 (200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 이미지와 자*

- 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pp.8, 38, 95.
- 이효숙 (2008). 헤어스타일의 시각적 평가에 따른 이미지 분류 및 선호도.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p.8, 17.
- 이효숙, 박숙현 (2007). 헤어스타일에 따른 시각적 평가.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3(4), pp.350-361.
- 이효재, 지순, 박민자 (1979). 한국저소득층 노인생활에 관한 사회경제 및 공간문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4, pp.239-288.
- 이희정 (2004). 성인여성의 여가교육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pp.56-57.
- 임점주 (2010). 노인여가행태와 자기통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p.21.
- 임정미 (2011). 노년기 여성의 외모관심도와 미용요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p.169.
- 임창희 (2005). 노인의 생활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p.7-9.
- 임창희 (2007). 직장여성의 외모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36(3), pp.597-621.
- 장규순 (2008).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토털 코디네이션 연출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p.34.
- 장지선 (2009). 필라테스 참여가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pp.4, 60.
- 전경란, 이명희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태도에 관한 연구. 복식, 52(3), pp.165-180.
- 전연숙 (2000). 여성의 화장에 대한 의식형태와 관련요인. 석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p.46.

- 전용수 (2001). *여성들의 화장실태와 화장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p.55.
- 전진수 (2003). *실버여성의 화장(化粧)태도 및 화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p.40.
- 전현진, 정명선 (2008). *중년여성의 신체관련 스트레스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6(1), pp.115-129.
- 전효정 (2005). *애착이 대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 과정적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외로움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3(9), pp.85-96.
- 정광하 (2006). *메이크업이 이미지효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pp.83-84.
- 정숙희, 심선녀 (2001). *컬러링 헤어스타일 선호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인체예술학회지*, 2(2), pp.169-180.
- 정진봉 (1999).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33.
- 정진태, 김칠순 (2009). *토탈 패션 Styling을 위한 헤어 행동 연구*. *복식문화연구*, 17(1), pp.90-104.
- 정향옥 (2009). *미용전공 고등학생의 외모관심도 및 선호이미지의 전공별 특성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p.43.
- 조기여, 유태순 (1997). *자기효능감, 화장근접도, 의복근접도의 상관관계*. *복식*, 32, pp.165-183.
- 조완규 (1993). *농민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p.6, 10.
- 조 은 (2003). *여성의 화장행동이 대인관계 및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효용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pp.42-45.

- 조지숙 (1992). *청소년의 신체상, 신체적 매력, 신체상의 왜곡과 자아존중  
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p.35.
- 최성재 (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사회과학편*, 49, pp.233-258.
- 최수경 (2007). 성인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심리적 특성이 화장행동  
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57(8), pp.60-74.
- 최수경 (2007).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박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  
대학원, pp.31-34, 71.
- 최영숙 (2010). *입소 여성노인의 시각적 뷰티케어 프로그램과 촉각적 뷰  
티케어 프로그램 효과 비교*.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p.67.
- 최은정 (2007). *메이크업이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기대  
학교 대체의학대학원, p.75.
- 최현 (1997). *건강수준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  
세대학교 대학원, p.13.
- 최현진 (2005). 중년 여성의 성형수술 경험을 통해 본 여성의 나이 들.  
*여성건강*, 6(1), pp.109-132.
- 하경연, 이명희 (2008). 색채와 질감에 따른 남성헤어스타일 이미지 연  
구. *복식문화연구*, 16(2), pp.293-304.
- 하주연, 고애란, 정미실 (2005). 여고생의 감각추구 성향과 신체 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태도. *한국의류학회지*, 29(5), pp.715-726.
- 홍성임 (2007). *소득에 따른 중년층의 외모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문,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p.68.
- 화장품신문사 (1998). *화장품연감*. 서울: 화장품신문출판국. p.27.
- 황진숙, 김윤희 (2006). 외모관리 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  
녕감. *대한가정학회지*, 56(3), pp.143-155.

- 大坊郁夫, 神山進(1996). *被服と化粧の社會心理學*. 京都: 北大路書房. pp.35-38.
- 余語莫夫 (1995). 感情の傳染現象ならびに化粧の心理的效用をめぐって. *日本纖維製品消費科誌*, 36(9), pp.561-566, 이화순 (200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 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p.8에서 재인용.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1990). Construction of circumf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pp.521-536.
- Ash, M. K, 정미홍 역 (2003). *메이케이의 아름다운 성공신화: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 서울: 나무와 숲. pp.155-233.
- Bloch, P. H., & Richins, M. L.(1992). You look "marvelous": The pursuit of beauty and the marketing concept. *Psychology & Marketing*, 9(1), pp.3-15.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pp.991-1008.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2), pp.117-124.
- Cash, T. F., & Dawson, K., Davis, P., Bowen, M., & Galumbeds, C. (1989). Effects of cosmetics use on th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image of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9(3), pp.349-355.
- Cash, T., Rissi, J., Chapman, R. (1985). Not just another pretty face : Sex roles locus of control and cosmetic use.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 pp.246-257.
- Dellinger, K., & Williams, C. L. (1997). Makeup at work. *Gender and Society*, 11(2), pp.151-177.
- Dienu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pp.71-75.
- Dion, K., Bersheid, E., & Walster, E. (1972). What is beautiful is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3), pp.285-290.
- Emmons, R. A., & Colby, P.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pp.947-959.
- Graham, J. A., & Jouhar, A. J. (1983). The importance of cosmetics in the psychology of appear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Dermatology*, 22(3), pp.153-156.
- Graney, M. J. (1975). Happines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30(6), pp.701-706.
- Heider, F. (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 New York : John Wiley & Sons. cited by 안범희 (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p.8-15.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pp.885-892.
- Krech, D. Crutchfield, R. S., & Ballachey, E. L. (1962). *Individual in societ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cited by 안범희

- (2010). *대인관계론*. 서울: 태영출판사. pp.108-116, p.121, pp.132-133.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cited by 김학년 (2006). *성격유형과 통제 위치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p.45.
- Lennon, S. J., & Rudd, N. A. (1994).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Family &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23(2), pp.94-117.
- Liu, B. C. (1980).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 A comparative indicators analysis between China, U.S.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39(1), pp.1-17.
- Mannell, R. C., & Dupuis, S. (1996), "Life Satisfaction". In J. S. Birren(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 2, New York : Academic Press, pp.59-64. cited by 박성복 (2003). 노년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요인의 평가. *한국행정논집*, 15(2), pp.359-376.
- Medley, M. L. (1980). Life satisfaction across four stages of adult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Human Development*, 11(3), pp.193-209.
- Neuqarten, B. L., Harviq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pp.134-143.
- Palmore, E., William P., Cleveland, J. B., Nowlin, D. R., & Ilene, C. S. (1979). Stress and adaptation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34(6), pp.841-851.
- Rook, K. S. (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 Impact

-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5), pp.1097-1108.
- Rudd, N. A. & Lennon, S. J. (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a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8(3), pp.152-162.
- Rudd, N. A. (1997). Cosmetics consumption and use among women: Ritualized activities that construct and transform the self. *Journal of Ritual Studies*, 11(2), pp.59-77.
- Snyder, M., Tanke, E. D., & Berscheid, E. (1977). Social percep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 : On the self-fulfilling nature of social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9), pp.656-666.
- Sontag, M. S. & Schlater, J. 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 pp.1-8.
- Terry, R. L. & Davis, J. S. (1976). Components of facial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2(3, Pt1), p.918.
- Thurston, J. L., Lennon, S. J., & Clayton, R. V.(1990).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2), pp.139-150.

# ABSTRACT

## A Study on Hairstyle Behavior and Make-up Motivation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Relation and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women in their 20s, 30s, and 40s -

Noh, Sun-Ok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study aims to identify relationships among attitude toward beauty treatment, interpersonal relation and life satisfaction for women in their 20s, 30s, and 40s, and to examine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beauty treatment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while defining the causal relationships of demographic variables, interpersonal relation and life satisfaction with attitude toward hairstyle and motivation for make-up.

A questionnaire was used as the survey method. Attitudes toward beauty treatment included hairstyle behavior, motivation for make-up, preferred hairstyle and make-up image, and preferred hairstyle and level of make-up. With regard to interpersonal relation, the four factors of dominant superiority, acceptance of sympathy, socializing friendship and flashiness were used. For satisfaction with life, the three factors of economic and social satisfaction, happiness, and

physical satisfaction were used. In terms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the age of the subjects, marital status, education, job, income, social class and residence were examined.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674 women, 309 of whom lived in the Capital Area, with the remaining 365 residing in Gangweon-do.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reliability coefficient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 -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hi^2$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1.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es toward beauty treatment and tend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

First, the higher the level of dominant superiority, acceptance of sympathy, socializing friendship and flashiness, the higher the level of conformity, interpersonal orientation, fashion, and individuality in terms of hairstyle behavior, higher the level of enhanced confidence, courtesy and pleasure of change in terms of motivation for make-up, and stronger the preference for color make-up.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dominant superiority and flashiness, the greater the preference for fancy and unique hairstyle and make-up images.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izing friendship, the stronger the preference for feminine hairstyle and make-up images.

Third, the higher the level of dominant superiority and flashiness, the greater the preference for short cut straight hairstyle. The higher the level of acceptance of sympathy and socializing friendship, the greater the preference for medium-length wave hairstyle. The higher the level of acceptance of sympathy and socializing friendship, the

greater the preference for layered medium-length wave hairstyle.

## **2 .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e toward beauty treatment and life satisfaction**

First, the higher the level of socio-economic satisfaction, the stronger the preference for conformity and individuality in terms of hairstyle behavior, and greater the preference for enhanced confidence, courtesy, and pleasure of change in terms of motivation for make-up, and stronger the preference for graceful and professional-looking hairstyle images and make-up images.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happiness, the greater for interpersonal orientation and individuality in terms of hairstyle behavior, and stronger the preference for feminine and sophisticated hairstyle images and make-up image.

Third, the higher the level of physical satisfaction, the greater the preference for conformity, interpersonal orientation, fashion, and individuality, and greater the preference for splendor and unique hairstyle images and make-up images.

Fourth, the higher the level of socio-economic satisfaction and happiness, the shorter the time spent applying make-up.

## **3. Differences in beauty treatment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First, in terms of hairstyle behavior, interpersonal orientation varied depending on age, so women in their 40s valued others' evaluations more than those in their 20s and 30s. Women living in the

Gangwon-do area valued conformity and fashion more than those residing in Seoul.

Second, as to motivation for make-up, courtesy was the highest among women in their 40s, and the lowest among those in their early 20s. Courtesy was the highest among high school graduates and lower, and was not valued among college students. Courtesy was more highly valued among married women than among single women, and women residing in the Gangwon-do area valued courtesy more than those living in Seoul.

Third, as to preferred hairstyle image, women in their 30s and 40s preferred a neat and graceful image compared to those in their 20s. A unique image was favored by women in their 20s the most, and a professional image was favored by women in their late 30s the most. Women in the upper and middle classes preferred a natural hairstyle image more strongly than women in the lower class.

Fourth, with regard to make-up image, a fancy image was more favored by women in their 20s and early 30s than it was by those in their late 30s and 40s. A graceful image was more favored by women in their 30s and 40s than it was by those in their 20s. In terms of education, a graceful, professional and sophisticated make-up image was favored the most by women who had completed graduate school.

In addition, a graceful make-up image was favored the most by women in the upper class, and a natural image was more favored by women in the upper and the middle classes than those in the lower class. Single women preferred splendor, unique, and cute images more than married women.

Overall, a natural image was favored the most, whereas a unique image was favored the least in terms of make-up image and hairstyle image.

Fifth, natural bangs hairstyles were favored the most overall, and long wave hairstyles were favored the next by women in their late 20s and early 30s, while women in their late 30s and 40s preferred the next a mid-length wave hairstyle. Short cut straight was least favored.

Sixth, the older and the more educated the woman, the more likely she was to put on make-up. Women in the middle class were least likely to put on colored make-up, while those in the upper class were more likely to put on colored make-up.

#### **4. Causal relationships of variables that affect attitudes toward hairstyle and motivation for make-up**

First, with regard to pursuit of conformity of hairstyle, dominant superiority, socio-economic satisfaction, happiness(-), social class(-), and resid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Interpersonal orientation with regard to hairstyle, socializing friendship, flashiness, and age had a significant effect. As for the pursuit of fashion in hairstyle, socializing friendship, flashiness, dominant superiority and resid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Individuality in hairstyle, flashiness, physical satisfaction, and age had a significant effect.

Second, with regard to motivation for make-up, flashiness, socializing friendship, and dominant superior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nhanced confidence. Considering motivation for make-up with regard

to courtesy, flashiness, socializing friendship, and resid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Considering motivation for make-up with regard to pleasure of change, socializing friendship and flashi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verall, tendencies of interpersonal relation such as dominant superiority, flashiness and socializing friendship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s toward hairstyle and motivation for make-up. In particular, the more dominant superiority was prevalent, the more conformity and fashion of hairstyles were favored and the more diversified the motivation for make-up. In addition, the stronger the socio-economic satisfaction, the more ardently the conformity of hairstyle was pursued. Happier women more strongly favored a feminine image, and women with higher physical satisfaction preferred a splendor image.

## 부 록

### 미용 행동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화장 및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지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각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평소에 행동하던 바를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0. 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지도교수: 이명희, 연구자: 노선옥 드림

I. 다음은 화장동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의 해당 번호에 하나만 V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화장을 하면 변화의 즐거움이 있다	1	2	3	4	5
2.화장을 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인 예의이다	1	2	3	4	5
3.화장을 하고 나면 의욕이 생긴다	1	2	3	4	5
4.화장을 하면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화장을 하면 표정이 밝아진다	1	2	3	4	5
6.화장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화장을 하고 나면 능력 있어 보인다	1	2	3	4	5
8.화장을 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다	1	2	3	4	5
9.화장을 하여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1	2	3	4	5
10.화장을 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1	2	3	4	5
11.화장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예의 있게 보인다	1	2	3	4	5
12.화장을 하면 기분전환이 된다	1	2	3	4	5
13.화장을 하면 자신의 인상이 바뀌는 것 같다	1	2	3	4	5
14.화장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 보다 자신 있게 행동한다	1	2	3	4	5
15.동성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화장을 한다	1	2	3	4	5

II. 다음은 헤어스타일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하나만 V표 하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유행에 맞는 헤어스타일은 멋있어서 따라 해보고 싶다	1	2	3	4	5
2.남이 날 평가할 때 내 헤어스타일을 중시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나는 헤어스타일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편이다	1	2	3	4	5
4.헤어스타일에 신경 쓰는 것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5.모임에 가서 내 헤어스타일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불안해진다	1	2	3	4	5
6.TV광고나 잡지에 나오는 모델의 최신 헤어스타일을 해보고 싶다	1	2	3	4	5
7.헤어컬러는 남과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색상을 주로 선택 한다	1	2	3	4	5
8.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다	1	2	3	4	5
9.사람들과 사귀는 데 품위 있는 헤어스타일이 도움이 된다	1	2	3	4	5
10.내가 속한 집단의 헤어스타일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 한다	1	2	3	4	5
11.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	1	2	3	4	5
12.나는 나의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1	2	3	4	5
13.나의 헤어스타일은 나의 개성을 돋보이게 한다	1	2	3	4	5
14.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 할 때 현재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따른다	1	2	3	4	5
15.헤어스타일을 연출 할 때 남을 의식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과감한 헤어스타일이 좋다	1	2	3	4	5
16.나는 낯선 사람들과 만날 때 대체로 사람들과 비슷하게 헤어스타일을 하려고 신경 쓴다	1	2	3	4	5

Ⅲ. 다음은 화장 이미지 선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이미지에 대하여 당신이 좋아 하는 정도를 V표 하십시오.

문항	전혀 선호하지 않음	선호하지 않음	약간 선호하지 않는 편	보통임	약간 선호하는 편	선호함	매우 선호함
1. 단정한	1	2	3	4	5	6	7
2. 화려한	1	2	3	4	5	6	7
3. 품위 있는	1	2	3	4	5	6	7
4. 독특한	1	2	3	4	5	6	7
5. 자연스러운	1	2	3	4	5	6	7
6. 여성적인	1	2	3	4	5	6	7
7. 전문직 같은	1	2	3	4	5	6	7
8. 귀여운	1	2	3	4	5	6	7
9. 성숙한	1	2	3	4	5	6	7
10. 세련된	1	2	3	4	5	6	7
11. 어려보이는	1	2	3	4	5	6	7

Ⅳ. 다음은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이미지에 대하여 당신이 좋아하는 정도를 V표 하십시오.

문항	전혀 선호하지 않음	선호하지 않음	약간 선호하지 않는 편	보통임	약간 선호하는 편	선호함	매우 선호함
1. 단정한 헤어스타일	1	2	3	4	5	6	7
2. 화려한 헤어스타일	1	2	3	4	5	6	7
3. 품위 있는 헤어스타일	1	2	3	4	5	6	7
4. 독특한 헤어스타일	1	2	3	4	5	6	7
5.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1	2	3	4	5	6	7
6. 여성적인 헤어스타일	1	2	3	4	5	6	7
7. 전문직 같은 헤어스타일	1	2	3	4	5	6	7
8. 귀여운 헤어스타일	1	2	3	4	5	6	7
9. 성숙한 헤어스타일	1	2	3	4	5	6	7
10. 세련된 헤어스타일	1	2	3	4	5	6	7
11. 어려보이는 헤어스타일	1	2	3	4	5	6	7



2. 다음의 헤어스타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정도를 각 문항마다 하나씩 V표 하십시오.

문항	전혀 선호하 지않음	선호하 지않음	약간 선호하 지않는 편	보통임	약간 선호하 는편	선호함	매우 선호함
1. 짧은 컷 스트레이트	1	2	3	4	5	6	7
2. 단발 스트레이트	1	2	3	4	5	6	7
3.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	1	2	3	4	5	6	7
4.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	1	2	3	4	5	6	7
5. 짧은 컷 웨이브	1	2	3	4	5	6	7
6. 단발 웨이브	1	2	3	4	5	6	7
7.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	1	2	3	4	5	6	7
8. 층이 있는 롱 웨이브 내려온 형태	1	2	3	4	5	6	7
8. 앞머리를 모두 내린 형태	1	2	3	4	5	6	7
9. 앞머리를 모두 올린 형태	1	2	3	4	5	6	7
10.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	1	2	3	4	5	6	7

Ⅶ. 다음은 대인관계성향의 내용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각각의 해당 칸에 하나만 V표 하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들에게 충고나 조언을 한다	1	2	3	4	5
2. 친구들은 고민이 있으면 나를 찾아온다	1	2	3	4	5
3. 남들로부터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1	2	3	4	5
4. 여러 사람 앞에서 의견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과장해서 말하기도 한다	1	2	3	4	5
5.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우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친구들보다는 내가 유능하다는 생각으로 행동한다	1	2	3	4	5
7.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돈을 준다	1	2	3	4	5
8.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9.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0. 사람들은 나를 꽤 관심 있게 보는 편이다	1	2	3	4	5
11.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시킬 만한 사람이 있으면 시키길 잘 한다	1	2	3	4	5
12. 나에게 잘못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	1	2	3	4	5
13.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잘한다	1	2	3	4	5
14.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하는 눈치다	1	2	3	4	5
15. 여럿이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	2	3	4	5
16. 불쌍한 친구를 보면 도와주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17. 남의 주목을 끌기 위해 가끔 유별난 행동을 하는 수가 있다	1	2	3	4	5
18. 남들로부터 잘난 척한다는 말을 듣는다	1	2	3	4	5
19. 어떤 모임에서나 내 주장을 이루려고 애쓴다	1	2	3	4	5
20. 다른 사람들은 나와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1	2	3	4	5
21. 남의 느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를 잘한다	1	2	3	4	5
22. 내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따른다	1	2	3	4	5
23.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집안일이나 나에게 대한 자랑을 한다	1	2	3	4	5
24. 사교적인 모임에 참석하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VIII. 다음은 생활만족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해당 칸에 하나만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나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만족 한다	1	2	3	4	5
2. 나는 아주 좋은 생활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4. 나는 새롭고 다양한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어서 만족 한다	1	2	3	4	5
5.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 한다	1	2	3	4	5
6. 나는 남들보다 좋은 체력을 갖고 있다	1	2	3	4	5
7. 나는 균형 있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1	2	3	4	5
8. 나의 하루 생활 지출 정도에 만족 한다	1	2	3	4	5
9. 나는 한달 수입에 만족 한다	1	2	3	4	5
10. 나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1	2	3	4	5
11. 나는 나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얻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12.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 한다	1	2	3	4	5
13.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 한다	1	2	3	4	5
14. 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만족 한다	1	2	3	4	5
15.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있다	1	2	3	4	5
16. 만일 내 삶을 다시 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겠다.	1	2	3	4	5
17. 나의 삶은 대체로 지루하고 피곤한 나날이었다	1	2	3	4	5

